

2021년 제4회 충남 마을만들기 대화마당

행정의 지원체계 정비



2021. 9. 24.(금) 14:00-17:00

금산군 진산면 진산애행복누리센터



충청남도



충남연구원 충남마을만들기지원센터
ChungNam Institute

목 차 CONTENTS

제4회 충남마을만들기 대화마당

“행정의 지원체계 정비”

개 요	05
-----------	----

추진 목적 및 프로그램 일정표

〈1부〉 특강

“행정 지원체계 정비 방향”	09
-----------------------	----

구자인 소장(마을연구소 일소공도 협동조합)

〈2부〉 사례발표

“마을만들기 지속을 위한 공무원의 역할”	31
------------------------------	----

정철 팀장(금산군 건설교통과 마을가꾸기팀)

심장보 팀장(당진시 공동체새마을과 마을공동체팀)

“‘행정지원체계 정비’에 대한 이해관계자 설문조사”	63
------------------------------------	----

이윤정 책임연구원(마을연구소 일소공도 협동조합)

〈3부〉 종합토론

“행정공무원도 마을활동가인가”	77
------------------------	----

좌장: 구자인 소장(마을연구소 일소공도 협동조합)

지정 토론: 사례발표자 3인, 김태영 주무관(보령시 도시재생과 마을공동체팀)

충남연구원 충남마을만들기지원센터
2021년 제4회 충남 마을만들기 대화마당
“행정의 지원체계 정비”

충남은 2015년부터 ‘농촌마을정책의 민관형치형 마을만들기지원시스템’을 구축을 추진해왔습니다. ‘마을만들기지원시스템’의 10대 과제중 행정영역의 주요과제로 행정의 역할과 지원방식을 재정비를 강조해왔습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2021년 현재 15개 시군 중 14개 시군은 총괄조정기능 부서(‘과’ 7개시군, ‘팀’ 7개시군)를 설치하여 농촌정책을 전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업무량 대비 인력부족, 전문성, 공모사업 방식 변화, 민관협력 대응 등 기존 행정업무와는 다른 점들이 많은 편으로 공무원들의 애로사항이 늘어나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2021년 제4회(총 50회차) 대화마당은 민관협치 농촌정책에서 행정 파트너로서의 전문성 강화와 행정간 정책 협업, 마을에서의 활동 방향, 공무원들의 애로사항 및 해결방안 등에 대해 집중 토론하고자 합니다.

- 일시: 2021.9.24.(금) 14:00~17:00
- 장소: 금산군 진산면 진산애행복누리센터(충남 금산군 진산면 읍내리 397-3)
- 진행방식: 대면+온라인 생중계 병행
 - 온라인 생중계: 페이스북 그룹 ‘충남마을만들기지원센터’
<https://www.facebook.com/groups/cnmaeul/>
- 주최/주관: 충남연구원 충남마을만들기지원센터, 충남도청
- 관련 정보 및 문의 041-406-7402(황유리 연구원)
 - 이메일 cnmaeul@gmail.com, 블로그 www.cnmaeul.net
 - 네이버밴드 충남마을넷 band.us/@cnmaeul

※ 저희 센터에서 발간하는 『마을독본』 15호(2021년 가을호)의 특집주제 “마을만들기 행정, 공무원도 마을활동가”를 읽고 참석해주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 세부 프로그램

사회: 정석호 센터장(충남마을만들기지원센터)

시간	진행내용	비고
13:30 ~14:00	참가자 등록 및 안내	발열체크 후 입장
14:00 ~14:20	개회 및 참가자 상호 인사	
14:20 ~15:20 (60분)	<1부> 특강 “행정 지원체계 정비 방향” - 발표: 구자인 소장(마을연구소 일소공도 협동조합) <2부> 발표 “마을만들기 지속을 위한 공무원의 역할” 1. 사례발표 - 정철 팀장(금산군 건설교통과 마을가꾸기팀) - 심장보 팀장(당진시 공동체새마을과 마을공동체팀) 2. 설문조사 결과 발표 - ‘행정지원체계 정비’에 대한 이해관계자 설문조사 : 이윤정 책임연구원(마을연구소 일소공도협동조합)	30분 각 10~15분 내외
15:20 ~15:30	휴식 및 교류	
15:30 ~16:50 (80분)	<3부> 종합토론 “행정공무원도 마을활동가인가” • 좌장: 구자인 소장(마을연구소 일소공도 협동조합) • 토론: 발표자 3명, 지정토론자 1명(김태영 주무관: 보령시 도 시재생과 마을공동체팀) • 주요 토론과제(예시) - 행정 정책 칸막이 해결 방안 - 농촌협약 연계 행정조직 개편방안 - 마을주민을 위한 행정조직의 역할 - 마을활동가로서 공무원의 역할	2021년 마을독본 가을호 특집주제 연계
16:50 ~17:00	광고 및 정리: 차기 일정 등 홍보	

※ [참고] 월별 운영계획

일시	회차	개최지	주제(예시)	비고
3.26. (금)	1차	(종합) 공간U	· 2021년 대화마당 취지, 주제, 방향 소개 · [주제] 농촌마을정책의 민관협치 시스템(종합) · 전체 시스템 종합토론과 핵심과제 확인	소규모 집합 온라인 송출
5.28. (금)	2차	천안시 ->당진시	· [주제] 농촌마을만들기협의회의 설립과 운영 · 당사자 협의체의 중요성과 역할, 과제 확인	소규모 집합 온라인 송출
7.30. (금)	3차	아산시	· [주제] 민간의 네트워크 법인 설립 · 수탁법인의 설립경로와 운영방식 검토	소규모 집합 온라인 송출
9.24. (금)	4차	금산군	· [주제] 행정의 지원체계 정비 · 행정의 정책 협업과 전문성 강화 방향 검토	소규모 집합 온라인 송출
11.26. (금)	5차	청양군	· [주제] 통합형 중간지원조직의 설치와 운영 · 통합형 설치유형과 운영 방향, 쟁점 토론	소규모 집합 온라인 송출
12.17. (금)	6차	(종합) 공감마루	· [주제] 시군 센터 우수사례 발표와 시상 · 14개 시군 센터별 우수사례 각 1건 발표	전체 집합 온라인 송출 (공감마루)

※ 제7회 마을만들기 충남대회, 상하반기 직무연수, 농촌정책 워크숍 일정을 반영하여 변경 가능

- * 개최 장소는 마을 현장(권역 센터) 혹은 시군 지원센터를 원칙으로 함
- * 향후 상황(코로나19 상황 등)에 따라 개최 시군 및 시기, 주제(쟁점) 등은 변경될 수 있음



충남연구원 충남마을만들기지원센터
ChungNam Institute

제4회 충남마을만들기 대화마당(금산)

【1부】 주제발표

“행정 지원체계 정비 방향”

- 구자인 소장(마을연구소 일소공도 협동조합)

충남 마을만들기 대화마당
2021년 4회(총52회)

2021. 09. 24(금) 14시
금산군 진산면 행복누리센터

마을만들기 '행정의 지원체계 정비' 방향

1. 행정이 모범이 되어 '정책의 칸막이'를 극복하고 농촌마을정책 발전을 선도하자.
2. 타 지자체 사례를 참고하며 공동학습을 통해 우리 지역 실정에 맞는 길을 찾자.

2021-04 충남 마을만들기 대화마당

행정의 지원체계 정비

2021. 9. 24(금) 14:00-17:00
금산군 진산면 진산대행복누리센터

주최: 충남마을만들기지원센터
주최: 충남마을만들기지원센터

주최: 충남마을만들기지원센터

2019. 7. 19 일 - 20. 8. 10 일

구자인
충남마을만들기지원센터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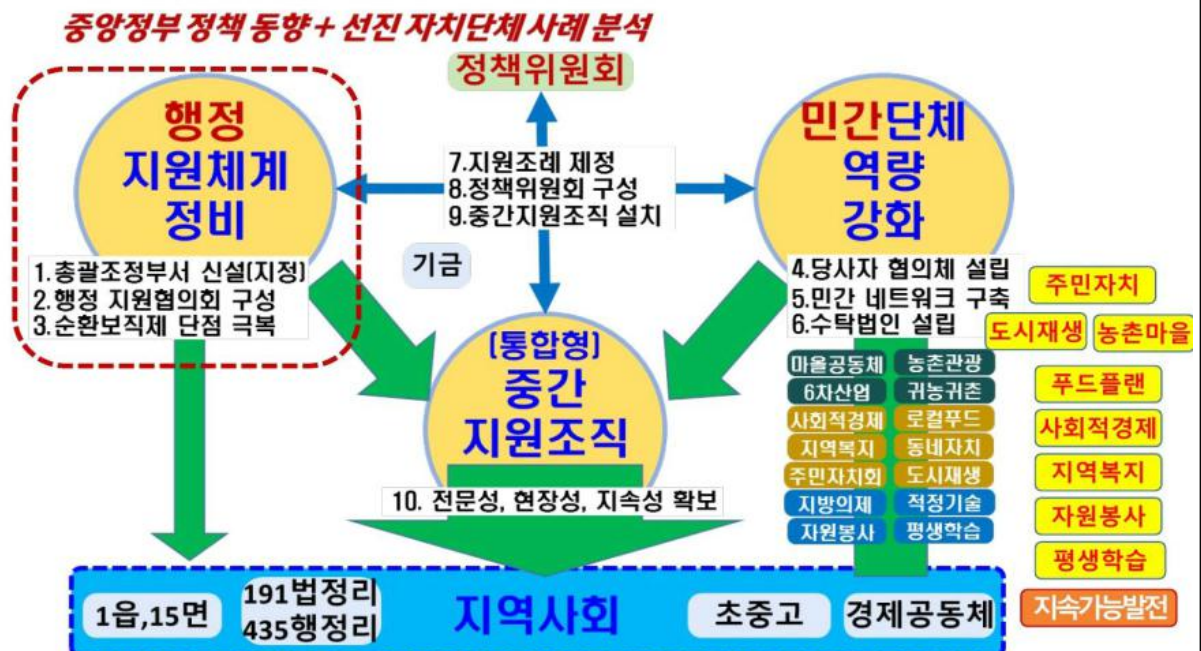
우리 스스로 만들어가는 농촌마을정책

강일마세
소음학
공학
도회



구자인 소장
마을연구소
일소공동
협동조합

[방향] '지속가능한 민관협치 시스템' 10대 핵심과제 해결 → 지역 특성에 맞추어 추진전략을 수립하고 단계적으로 접근



1. 문제의식

“왜 ‘행정 지원체계 정비’ 인가?”

[문제의식] 행정도 애로사항이 많고, 할 말이 있다
→ 그럼에도 “행정이 변해야 농촌이 산다”



주민 당사자

“제도 개선이 너무 안된다”

“상향식이라 말하지만 안된다는 것이 너무 많다”, “사전 준비가 너무 안된 상태에서 선정되는 것 같다”, “교육 방법론 개선이 시급하다”, “사업지침이 너무 복잡하고 어렵다”

행정 공무원

“내가 할 수 있는 게 너무 없다”

“사업지침이 너무 자주 바뀐다”, “주어진 업무량을 무시하고 신규 사업이 너무 많다”, “항상 감사가 두렵고 징계가 신경 쓰인다”, “행정 내부의 칸막이로 사후관리가 쉽지 않다”, “중간지원조직이 꼭 필요한 것 같은데...”

컨설팅 기관

“고생하지만 보람이 없다”

“현재 입찰 방식으로는 지속적인 결합이 어렵다”, “행정에서 항상 ‘을’ 취급받아 전문가로서 자존감이 떨어진 다”, “현장에 밀착하려 하지만 결합하기가 쉽지 않다”, “지역에 중간지원조직이라도 있으면 조금 안심이 된다”

중간지원조직

“인력도 지위도 너무 열악하다”

“인력은 적는데 할 일은 너무 많다”, “같은 현장에서 시행되는 행정사업들 사이에도 칸막이가 너무 높다”, “주변에 역량 있는 활동가를 찾기 어렵다”, “행정에 중간지원조직의 위상과 역할을 설득하기가 쉽지 않다”

4

[참고] 충남 농촌정책 협업 촉진과 주민자치 강화 조례

2021.02.22 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 농촌정책의 협업을 촉진하고 농촌 읍면 단위의 주민주도형 정책 수립과정을 지원함으로써 자치분권에 기여하고 농촌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농촌과 도시지역 간 균형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① 농촌
- ② 농촌주민
- ③ 농촌형 주민자치회
- ④ 농촌지원사업
- ⑤ "농촌정책"이란 읍면 단위 농촌지역에 투자되는 중앙부처 및 충남도의 정책과 사업을 말한다.
- ⑥ "정책협업"이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에 근거하여 범정부 협업 활성화 계획에 의한 행정부서간 협업이 필요한 정책을 말한다.

2. 지자체 행정의 3대 핵심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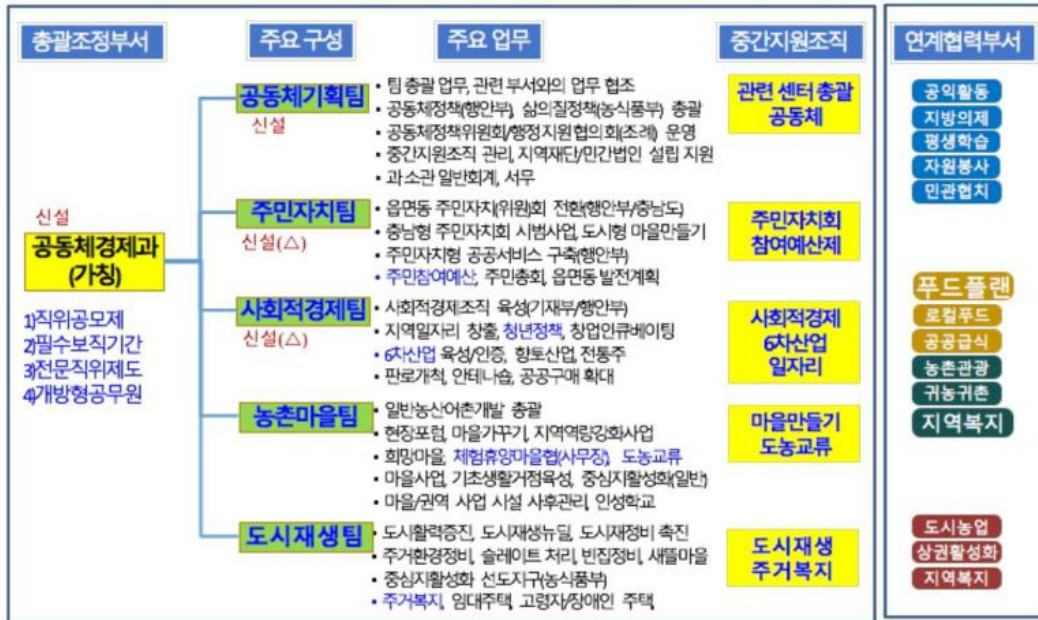
“행정이 주민 앞에 먼저 답할 때”

[과제1] 행정조직 개편 : 총괄조정부서 신설+인사 → '지자체 실정'을 반영하고 공동학습을 통해 결정

[1] 도농통합시 유형

공동체+주민자치, 사회적경제, 농촌 마을공동체, 도시재생 등

- 1) 민간 주도, 상향식 강조 업무
- 2) 행정과 주민의 거버넌스가 필요한 업무
- 3) 중앙정부 정책과 연계하여 새롭게 대두되고 융복합 성격이 강한 업무
- 4) 중간지원조직의 설치가 적극 요구되거나 논의되는 영역



11

[2] 농촌 '군' 유형

주민자치+농촌마을(복지, 체험, 귀농...) 사회적경제(6차), 푸드플랜 등



12

[향후] 행정조직 개편의 두 가지 경로 : 누가 선택? → '농촌마을정책'은 어떤 경로를 어떻게 선택해야 하는가?

제1안 : [좁은 의미] 농식품부 농촌정책국 영역 중심의 개편

농촌정책과 : 농촌공간계획, 농발계획, 삶의질계획

지역개발과 : 농촌 마을공동체 + 중심지활성화/기초생활거점(H/W), **농촌협약**

농촌산업과 : 농촌관광, 6차산업

농촌사회복지과 : 농촌복지, 사회적농업, 사회적경제, 푸드플랜 총괄

농촌여성정책팀 : 여성복지, 농촌축제
(귀농귀촌)

"20여년 전에는 농촌개발팀이
기반조성팀이란 이름으로
농정과(농업정책과)에 있었다"

농식품부의 농촌협약제도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그 이후의 다양한 지역발전투자협약에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제2안 : 사회적 가치 지향의 지역사회정책 영역 중심의 개편

농촌 마을공동체 +

읍면 주민자치회, 사회적경제, 푸드플랜,

평생학습(마을교육공동체), 도시재생, 지속가능발전

민간+행정 **공동학습과 토론**을 통해 **지자체 특성 반영**하여 결정

13

[충남] 농촌 마을만들기 전담 '팀' 신설과 조정 → 2015년부터 지속적 문제제기 + 지자체 판단 + 도 공모사업

유형	유형1(건설과유지, 재편)	유형2(특정 정책연계 '과' 신설)	유형3(공동체전담 '과' 신설)
개편 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본적으로 건설(교통, 도시)과 농촌개발팀(혹은 기반조성팀) 형태로 유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과 농업기반정비 업무 중심으로 배치 시설 직렬의 3~4명이 과도하게 많은 업무를 담당하고 농어촌공사에 대부분 대행 처리 		
개편 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업기반정비 업무를 분리하고, 건설(교통, 도시)과 산하에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전담부서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유형1 포함 사회적경제나 도시재생 등의 영역과 합쳐 별도 '과'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유형1 포함 주민자치, 사회적경제 등과 합쳐 공동체 중심의 전담 '과' 신설
특징 (장, 단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같은 시설 직렬 중심을 유지하고 비교적 쉽게 개편 가능 같은 과 내에서 협력 필요성 자체 가미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도농통합시 특성을 반영하여 특정 정책과 강력하게 결합 가능 다른 과 업무와의 협력관계는 비교적 미흡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동체 관련 업무 사이에 협력가능성이 매우 증대. 중간지원조직의 통합형 설치 용이 농식품부 농촌협약 대응에 혼란 존재
시군 사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홍성군, 예산군, 금산군, 서천군 천안시(농업정책과 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아산시(사회적경제과) 보령시(도시재생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논산시, 서산시, 공주시, 부여군, 당진시, 태안군 청양군(농촌정책도 포함)

주) 계룡시에서는 조직개편이 이루어지지 못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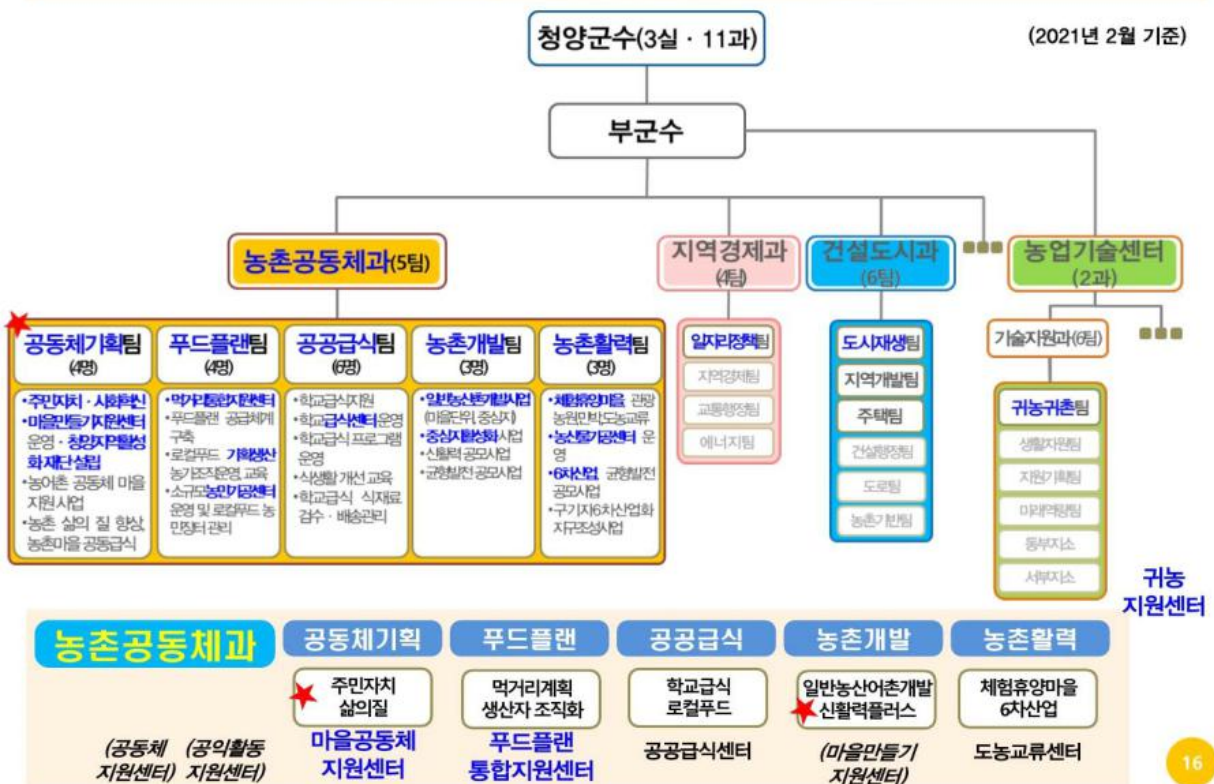
민간+행정 **공동학습과 토론**을 통해 **지자체 특성 반영**하여 결정

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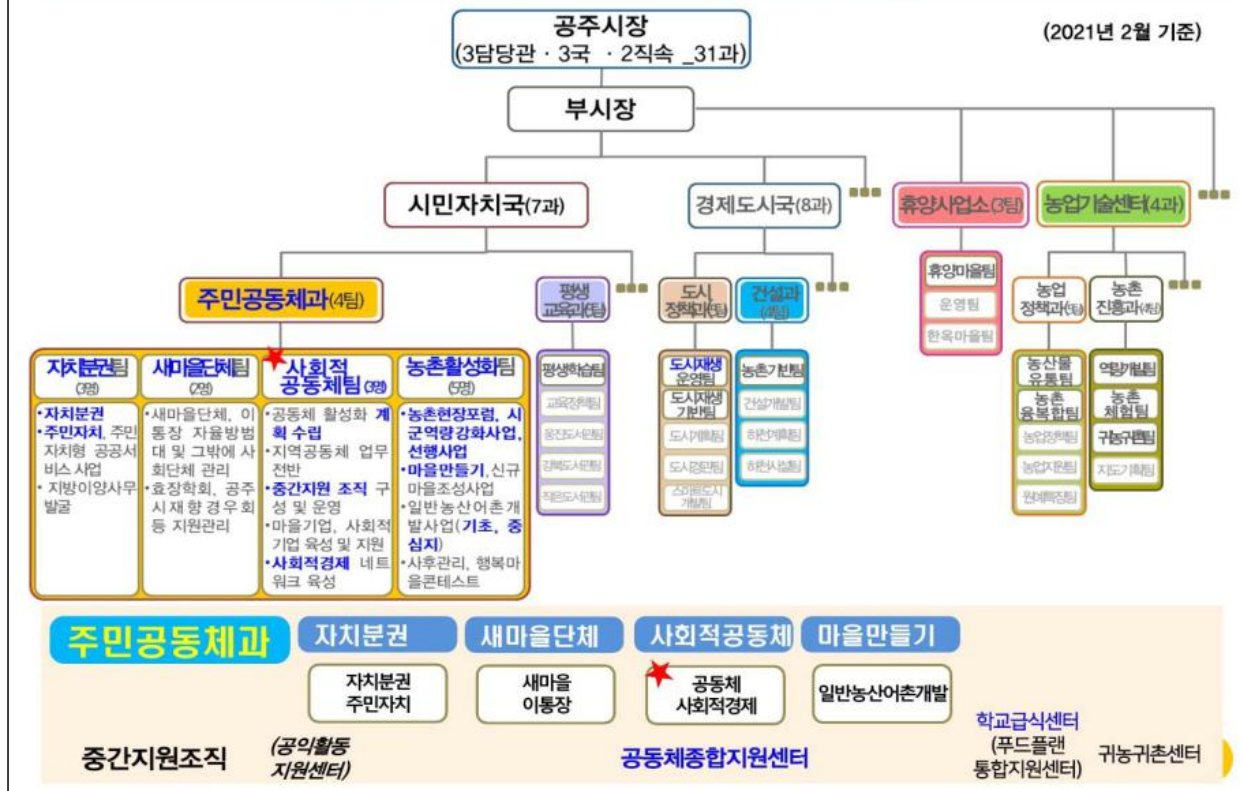
[충남1] 2015년부터 지속적인 문제제기, 학습, 토론 → 민선7기에 들어와 7개 시군에서 공동체 전담 '과' 신설

시·군	부서명	설치 연월	팀 현황		업무 융복합 영역	비고
			팀명	인력		
청양군	농촌공동체과	2019.1	5팀 : 공동체기획팀 , 푸드플랜팀, 공공급식팀, 농촌개발팀, 농촌활력팀	21명	마을만들기+주민자치+농촌관광+푸드플랜	센터 시간선택 임기제 제외
공주시	주민공동체과	2019.1	4팀 : 자치분권팀, 새마을단체팀, 사회적공동체팀 , 농촌활성화팀	14명	마을만들기+주민자치+사회적경제+새마을	센터 시간선택 임기제 제외
서산시	시민공동체과	2019.1	4팀 : 주민자치팀, 혁신분권팀, 마을공동체팀 , 사회적경제팀	15명	마을만들기+주민자치+사회적경제+자치분권	
논산시	마을자치분권과	2019.1	3팀 : 마을자치팀, 공동체새마을팀 , 마을사업팀	16명	마을만들기+주민자치+새마을	공동체새마을팀 공무원 2명포함
부여군	공동체협력과	2020.1	4팀 : 공동체기획팀, 상권활성화팀, 마을만들기팀 , 도시재생팀	18명	마을만들기+주민자치+상권활성화+도시재생	
당진시	공동체새마을과	2020.1	4팀 : 주민자치팀, 마을공동체팀 , 사회적경제팀, 새마을팀	16명	마을만들기+주민자치+사회적경제+새마을	센터 시간선택 임기제 제외
태안군	주민공동체과	2021.1	4팀 : 공동체기획팀 , 농어촌마을팀 , 일자리사회적경제팀, 도시마을팀	18명	마을만들기+주민자치+사회적경제+도시재생	센터 시간선택 임기제, 기간제 3명제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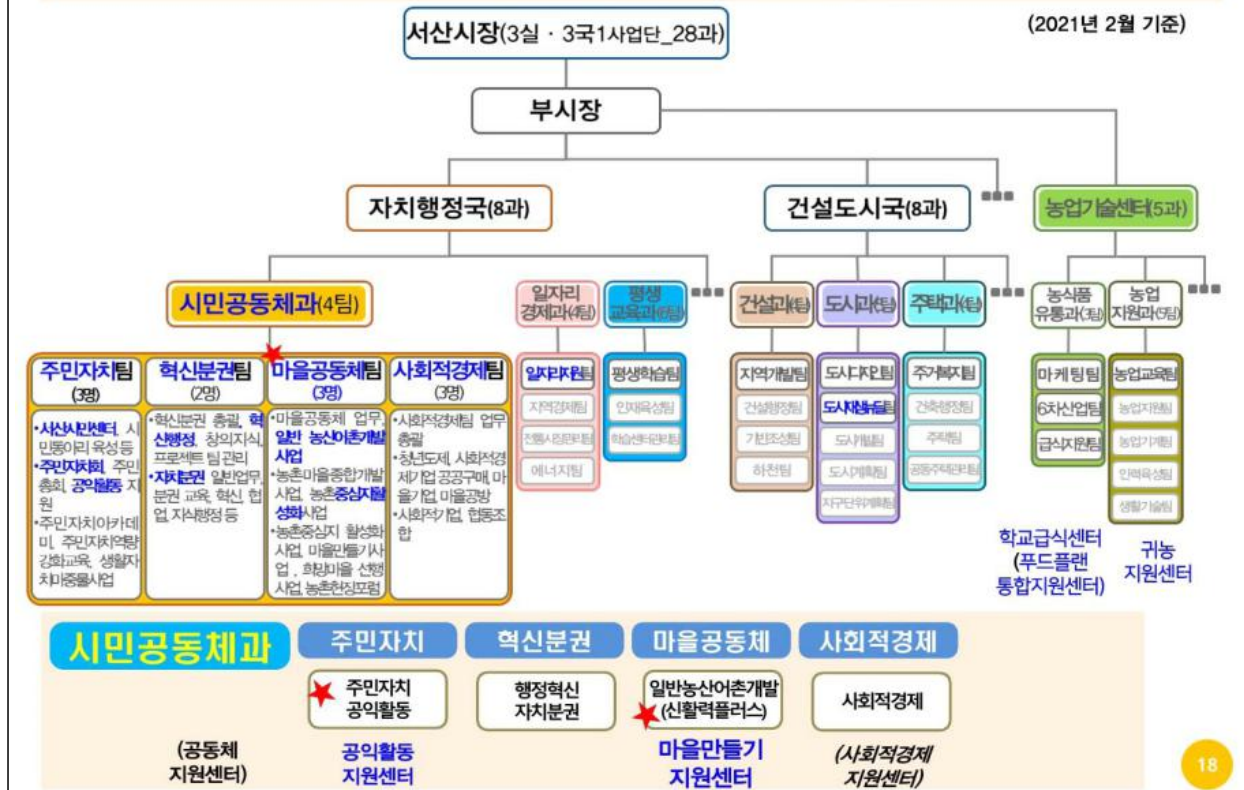
[사례 1] 청양군 농촌공동체과



[사례 2] 공주시 주민공동체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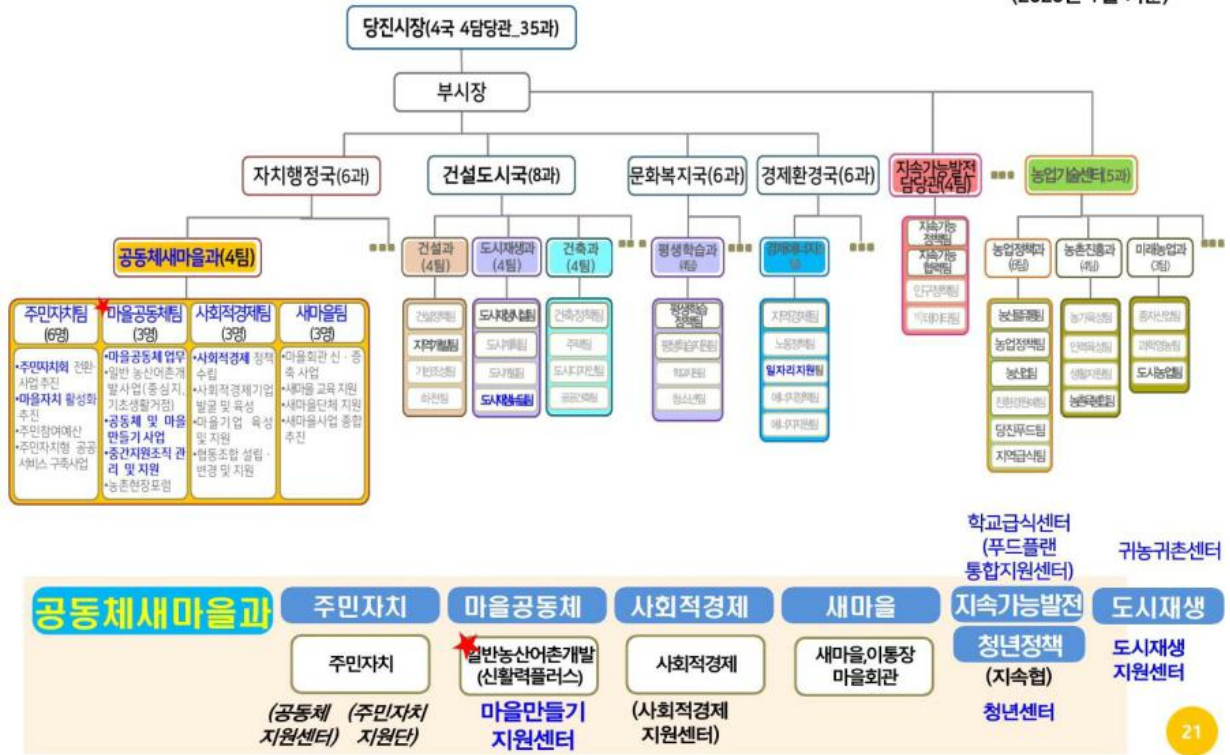


[사례 3] 서산시 시민공동체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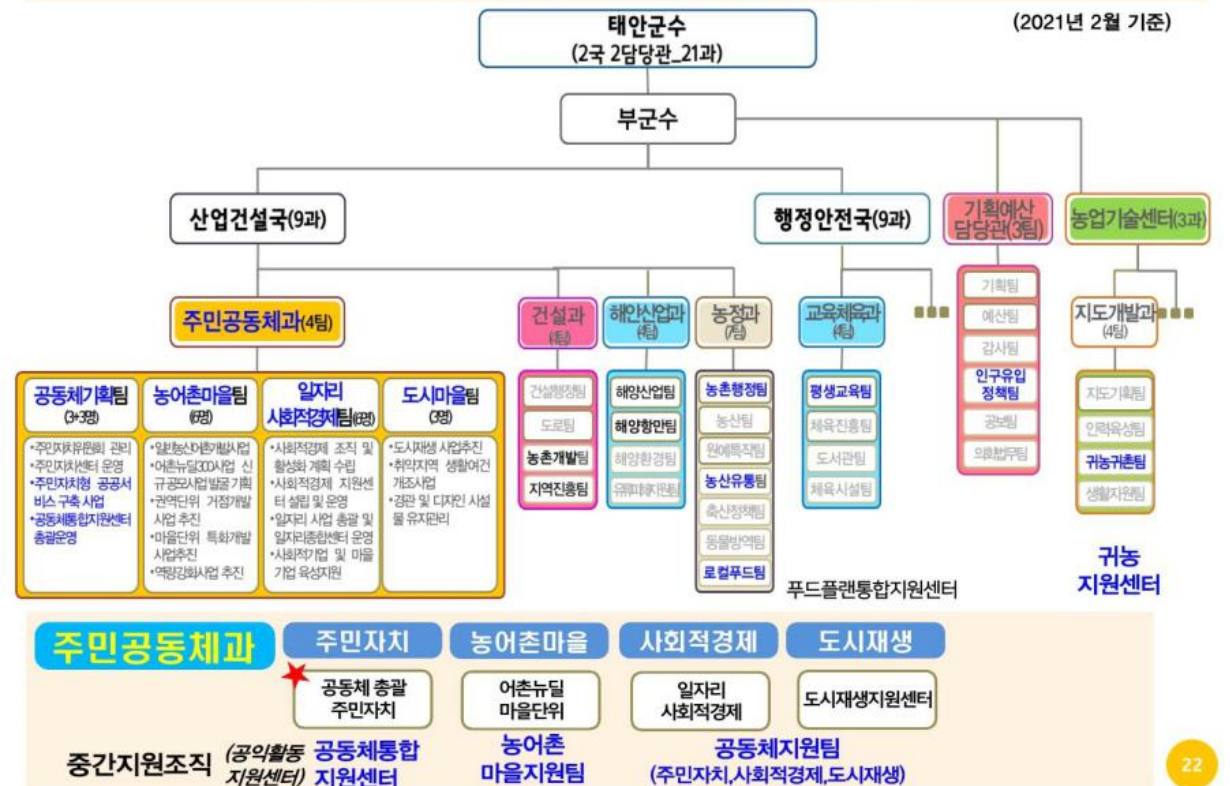
[사례 6] 당진시 공동체새마을과

(2020년 1월 기준)



[사례 7] 태안군 주민공동체과

(2021년 2월 기준)



[참고] 아산시 푸드플랜, 공동체 정책 조직개편 제안[2019.12]

아산시 농업기술센터(현재)

농정과/축수산과/유통지원과
/농촌자원과/농업기술과

먹거리정책과 검토사항

- **먹거리정책팀(총괄)** - 임기제공무원 1~2명 채용
(신활력플러스, 푸드플랜, 중간지원조직 총괄)
- **소농, 가족농, 관계시장 형성 등에 초점을 두고 업무 정비**
(업무량에 맞게 적절한 인원수 배치, 부족분은 공무원 포함)
- **공동체경제과와 강력한 협력관계 유지**
 - 농업기술센터 소속을 계속 유지? → 정책관 신설 배치?
 - 중간지원조직 통합 설치와 연계하여 집중 검토

아산시 기획경제국(현재)

기획예산과/미래전략과/기업경제과
사회적경제과/세정과/징수와

공동체경제과 검토사항

- **주무 팀(총괄)** - 어느 팀이 적절한가? 핵심업무는?
(임기제공무원 1~2명 채용, 중간지원조직 총괄)
- **다양한 지역사회개발 정책의 통합 배치**
(주민참여, 민관협력, 융복합, 중간지원조직 강조 영역)
- **먹거리정책과와 강력한 협력관계 유지**
 - 농촌마을(생산조직화), 도시마을(소비조직화) 차원
 - 중간지원조직 통합 설치와 연계하여 집중 검토



공동체경제과 (5팀)



[참고] 완주군 먹거리정책과, 사회적경제과[2020] ← ... ← 농촌활력과

완주군 경제산업국

일자리경제과 / 사회적경제과 / 먹거리정책과 /
환경과 / 농업축산과 / 산림녹지과

건설안전국 도시개발과

도시계획팀(5) / 개발행위팀(4)
/ 도시재생팀(4) / 농촌개발팀(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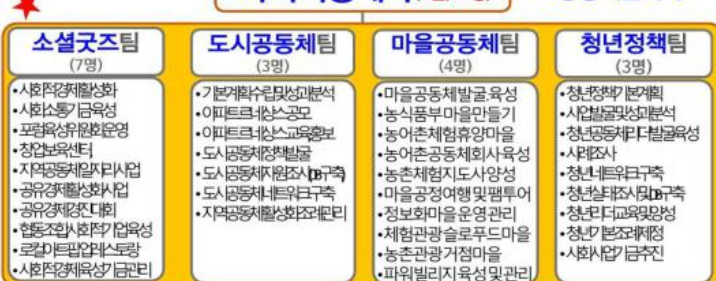
먹거리정책과 (5팀, 23명)



(재)로컬푸드
공공학교급식
지원센터
로컬푸드
거점농민
가공센터

농촌개발팀(3명)
• 농촌중심지활성화
• 기초생활가점육성
• 취약지역생활여건개선
•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 마을단위종합개발사업
• 권역단위종합개발사업
• 권역마을단위종합개발
• 원거지구조성사업

사회적경제과 (4팀, 18명)



(사.협)완주
사회적경제
네트워크

소셜굿즈
지원센터

← 공동체지원센터

(재)완주커뮤니티
비즈니스지원센터 → 도시재생지원센터

[참고] 해남군 혁신공동체과(2020.07)

← 공동체활성화 협의체(2019.11) ← 의원 연수(2019.09)



사회적공동체 지원센터

사회적경제 마을공동체
중간지원조직

- 전남도 공모사업 : 3년간 135백만원 지원
- 2021년 3월 개소
- 행정직영으로 출발
- 거점공간 : 청년 정책 공유 오피스와 연계

- 14개 읍면 주민자치(위원)회 구성 완료(2020.12)

공동체활성화협의체(2019.11)

- 민간 전문가 6명 + 군의회 2명 + 공무원 11명
- 조직개편분과, 제도정비분과, 네트워크분과
- 매주 1회 학습모임

의원 '마을공동체 활성화' 연구단체(2020.03)

- 군의원 7명
- 공동체 활성화, 중간지원조직 설치, 행정조직 개편

25

* 내가 우리 자치단체 시장, 군수라면 ...

[예시] 우리 자치단체에서 공동체 전담 '과'를 신설한다면...

총괄·조정 부서	팀 명	관련 중앙부처	주요 업무(분장사무)	중간지원조직
공동체 경제과 직위공모제	공동체기획팀	행정안전부 지역공동체과 농식품부 농촌정책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동체 총괄, 재단 운영 정책위원회, 행정협의회 운영 주민자치, 주민참여예산제 삶의 질 계획 	사무처 기획팀 운영팀
	마을만들기팀	농식품부 지역개발과 복지여성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촌마을만들기, 역량강화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농촌교육·복지·교통, 공동급식 여성농업인, 사회적농업 	마을만들기 지원센터 마을 사업팀 도농 상생팀 귀농 귀촌팀
	도농상생팀	농식품부 농촌산업과 농촌인력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체험휴양마을, 사무장 도농교류, 식생활교육 귀농귀촌, 도시민농촌유치 귀농귀촌 창업융자 	
	사회적경제팀	기재부, 행안부 고용노동부 농식품부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회적경제, 공동체회사 지역일자리창출, 창업 지원 6차산업, 판로개척 청년 정책 	사회적경제 지원센터
	도시재생팀	농식품부 국토부 중기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심지활성화(선도) 도시재생뉴딜 전통시장, 상권활성화 	도시재생 지원센터

26

[토론과제] 행정 조직 개편방향

- 각 항목별로 스티커 작업을 하면서 토론 진행 (총 50분)
- 조장이 진행을 주도하고, 정리하여 발표 (각 5분)

- 1) 타 지역의 동향을 참고하면서 효율적인 조직체계를 창의적으로 구상해보기
 - 2) 조직개편을 염두에 두고 정책 수요자인 주민 입장에서 유사 업무의 통합과 조정 제안하기
 - 3) 강의 내용과 개인 경험에 기초하여 각자 **각 칸마다 최소 1개 이상 의견 적기** (1인 5분)
- * 포스트잇을 활용하여 한 장에 하나씩 큰 글씨로 키워드 적기

(1) 유사 정책(업무) 키워드 찾기

농촌 마을 농촌관광 학교급식
 귀농귀촌 6차산업화 사회적농업
 푸드플랜 사회적경제 일자리
 마을교육공동체 평생학습 지속가능발전
 청년창업 지역복지 자원봉사
 주민자치회 도시재생 전통시장

(3) 기타 의견(필요성, 직렬, 인사 등)



(2) 공동체 전담 과 : 팀 구성과 업무 분장안

- '과' 명칭
- '팀' 구성과 주요 업무
- 기존 '팀' 업무와의 관계 등

총괄·조정 부서	팀 명	주요 업무(기존 '팀')
00000 과	000팀	· · ·
	000팀	· · ·
	000팀	· · ·
	000팀	· · ·
	000팀	· · ·

[과제2] 행정지원협의회 구성 = 업무협조체계 강화 → 직접 유사 업무는 '과'로, 나머지는 행정협의회 운영

농식품부의 신활력플러스사업, 농촌협약제도 등에서 계속 강조

구성 :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 신활력플러스 + 농촌협약 범위

(농촌 삶의질계획)

농촌 마을공동체 + 중심지활성화 + 농촌관광, 6차산업 +
농촌복지, 사회적농업, 푸드플랜 + 귀농귀촌

+

주민자치회, 사회적경제, 평생학습(마을교육공동체), 도시재생, 지속가능발전 등

[공통점]

- 1) 주민과의 접촉이 많고
- 2) 업무 자체가 융복합 성격이 강하며
- 3) 중간지원조직 설치를 요구 받는다

운영 : 조례에 근거하여 정기적 개최 + 인센티브 + 문화적 장치

참가 단위 : '팀' 단위가 보다 실효성

설치근거 : 반드시 (마을만들기) 조례에 명시 → 총괄조정 전담부서의 소집 권한

주요 역할 : ① 각종 행정 사업 정보 공유(특히 교육 사업), ② 공모사업 절차와 일정 등
방법론 통일, ③ 보조사업 대상자의 선정절차와 결과 공유, ④ 다음 연도의
각종 예산 및 사업계획 협의, ⑤ 중간지원조직 지원방안 공유, ⑥ 정책위원
회 상정 안건의 협의와 정리, ⑦ 민간 네트워크 법인과의 협력방안 협의 등

정기회의 : 연간 2회(상반기, 하반기) → 설치 초기에는 분기별 1회 이상 개최

지속성 확보 : 협업 담당자 지정, 인센티브 등의 제도적 장치 + 문화적 장치
+ 연2회 정기인사 이후에는 반드시 점검하고 확인 필요

[참고] 자치분권 강화에 따른 행정의 정책 전문성, 협업 촉진

- 1) **관련 동향** : 문재인 정부의 자치분권 정책에 따라 빠른 변화
 - 자치조직권 확대, '과' 신설 자율화 "2018년도 지방자치단체 조직관리지침"
 - 자치분권 종합계획 : 장기근무 보직과 순환근무 보직의 구분
 - 2019년 정부혁신 6대 역점 ② "기관간, 기관 내 칸막이를 허무는 협업 강화"
 - 2020.03, "지역사회 중심 정책 연계 5개 부처 업무협약" → 2021.01 공모사업
- 2) **행정안전부(2020.10)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 협업 활성화 계획, 협업이음터 (www.gwanghwmoon1st.go.kr)
 - 협업책임관, 협업지원관, 협업 매칭 매니저 → 단계적으로 지자체 적용
 - 협업 실적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지침"(인사혁신처 예규) 반영
 - 특별교부세, 보통교부세 산정 기준에 지자체 협업/협력 지표 반영
- 3) **지자체 대응 방향** : 자치분권 시대에 행정(공무원)의 존재 의미
 - 중앙정부 정책 동향에 선제적 대응
 - 정책 수요자인 주민 관점에서 행정 스스로의 혁신
 - 민관협치의 정책 시스템 구축
- 4) **지자체 조례, 지침** : 정책 협업에 따른 인센티브 도입
 - 협업 업무 인정, 성과 평가 가점, 협업 수당, 해외연수 등

사례1 : 서산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행정 TF팀 설치 및 운영

2020년 1월 설치, "농어촌공사 대행수수료 17억원을 절감하고 부서간 칸막이를 허파"
 구성 : 자치행정국장(팀장), 시민공동체과장, 마을공동체팀장, 마을공동체팀(시설직 2명, 건축직 1명), 회계과 공업직 2명, 정보통신과 방송통신직 1명 등 3개 과, 4개 팀 8명 + 외부전문가 1명

사례2 : 보령시 마을공동체 행정지원협의회

근거 :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 제13조
 구성 : 11개 부서 14개 팀(2015년) - 공모사업 신청과 업무협조
 2018년 '보령 삼통회' 기획 → 행정+민간단체+중간지원조직 → 구상만 있고 실행 못함
 신활력플러스 : 2020년 3월 재구성 → 2021년부터 실질적 운영(?)

사례3 : 천안시 마을공동체 행정지원협의회(한울타리)

근거 :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 제9조
 구성 : 10개 과 20개 팀(2017년) → 연 1회 부정기적으로 개최

사례4 : 홍성군 홍성통 + 공무원 학습동아리(마을통)

[참고] 행안부 ‘전문직위군’ 제도와 업무협조체계 강화

- 1) 중앙부처에만 적용하던 것을 2016년부터 지자체에서도 시행할 수 있도록 확대
 - 2) 근거 :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행정안전부 예규 제 126호, 시행 2020.9.22)
 - 3) 주요 내용
 - 한 직위에서 ‘3년 이상 근무’를 의무로 하는 전문직위 제도를 더욱 확장
 - 유사한 정책 영역을 하나의 군(群)으로 묶어 5년 이상 근무하도록 하는 것
 - 4) 활용가능성 : 행정협의회 안에서 유사 업무를 추진했던 부서 사이의 이동을 적극 장려하여 업무 연계성과 지속성을 더욱 강화
- 행정협의회의 효율적 운영과 순환보직제 단점 극복이란 ‘두 마리 토끼’를 함께 잡을 수 있는 제도

한국행정연구원, 2021.01, 『2020년 공직생활실태조사』(총 응답자 4,339명)

“공무원의 전문성 향상을 저해하는 요인”(1순위 응답 기준)

1위 : ‘순환보직으로 인한 잦은 인사이동’

기타 : ‘연공서열식 평가 및 승진’과 ‘과다한 업무량’, ‘전공 및 적성과 무관한 인력배치’ 등

31

[과제3] 순환보직제 단점 극복을 위한 제도 강화 → 공무원의 정책 전문성 강화의 전제조건(‘불편한 진실’)

- 1) 필요성 : 다양하고 복잡하며 빨리 변하는 마을공동체 사업 - 유형, 방식, 절차 등
 - 마을 주민들의 요구와 정책 변화에 적극 대응할 수 있는 행정 체계 요구
 - 특수 업무의 연속성 유지, 전문성 요청 반영
- 2) 방법 : 전략사업 중심으로 단계적 확대
 - ① 과장/팀장 공모직위제 도입, ② 필수보직기간 2년 준수
 - ③ 전문직위제(전문관) 확대 : 3년 의무 근무, 이번 인사부터 적극 반영
 - ④ 임기제 공무원 채용 : 지역사회개발 융복합 분야 중심으로 단계적 확대

국도비 공모사업
적극 대응

공무원
전문직위
제도

- 관련 근거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7조의3, 평정규칙 제16조 제3항 등
- 대상 직위 및 직급 : ※ ‘전문직위군’ 지정 및 관리 가능
 - 분야 : 업무의 계속성과 전문성이 특히 요구되는 지위
 - 대상 : 경력직 공무원의 직위(복수직위 포함)
 - 직급 : 시·도 3~7급, 시·군·구 5~8급(상당 직급 포함)
- 인센티브 : 경력 평정 가산점 부여, 직위수당 지급, 능력개발 지원 등

3년간 필수보직
(전보 제한)

임기제 공무원 제도	일반임기제	시간선택제	전문임기제	한시임기제
정원	정원 대체	정원외	정원 대체	정원외
기준인건비	포함	포함	포함	포함
근무시간	상근	주 15~35시간	상근	주 15~35시간
민간 전문가 채용	근무기간	총 5년 (신규임용자 5년연장 가능)	1년 단위(단체장 임기만료일 이전 연장)	총 1년(필요시 1년6개월 연장)

[기타 과제] 행정사업의 관점과 추진방법론 개선

→ 현장밀착형 중간지원조직 설치 및 운영
사업 매뉴얼 개발, 교육방법론 개선 등

행정
사업

- 1) 마을/당사자에 대한 직접적 예산사업 지원 자제(신중)
- 2) 행정사업의 발굴 관점 : **신규 사업 발굴 자제**
- 3) **사업 집행 방식의 개선** : 마을과 주민의 객관적 역량 존중
→ 상향식 사업(소규모 프로젝트) 제안 중시
→ 실천학습(Action Learning) 관점

기본
관점

중앙
광역
사업

- 1) 법,제도 정비 + 시범사업 + 시·군 조정과 자극(정책적 유도)
- 2) 시·군 밀착 전문가 그룹, 민간 컨설팅 업체 육성 지원
- 3) 주민교육(학습)용 **교재/교구 개발**
→ 워크숍 키트, 달력, 동화/만화/동영상, 학습자료 등

기초
사업

- 1) **소액 실행사업** 발굴과 집행 : **행정사업의 단계별 지원**
- 2) **현장밀착형 지원 체계 구축** : 읍면 단위에서 융복합 지원
- 3) 네트워크 주간, 축제, 사업 등 **협력 네트워크 사업 장려**

33

[참고1] 공모사업 대상 마을/조직 선정방법론 개선 : 학습형 설계

주민참가형 교육(학습)이 선행되어야...



- ① 기존 방식(a) : 공고 → 접수 → 서면심사 → 현장심사 → 선정
- ② 개선된 방식(b) : **사업설명회** → (a) → 결과보고회 → 우수사례 추가지원
- ③ 학습 강화 방식(c) : a+b+ **공동학습과정** → 사업계획 발표 → 평가 및 선정

34

[참고2] 행정 사업의 연계, 협력 : 역량단계별 지원(충남 2019.01 개정판)

[참고] 우리 마을에 맞는 사업은? 역량단계별 마을 사업 예시 | 개념도



구분	역량단계	사업번호	담당부서	실과	사업명	비고
1단계	1-1	농정국	농촌마을지원과	농촌 현안조사	1	
1단계	1-2	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	찾아가는 문화활동	2	
1단계	1-3	문화체육관광국	문화정책과	찾아가는 문화활동 사업	3	
1단계	1-4	복지보건국	보건정책과	우리마을 주제의제	4	
1단계	1-5	복지보건국	저출산고령화대책과	특산물인 공동생활체 운영	5	
1단계	1-6	건설교통국	건축도시과	고령자-장애인 주거환경개선 사업	6	
1단계	1-7	소방본부	화재예방과	농어촌마을안전사각지대 소방안전망 구축	7	
1.5단계	1.5-1	농정국	농촌마을지원과	마을회의 운영	8	
1.5단계	1.5-2	건설교통국	건축도시과	농어촌 빈집 정비사업	9	
1.5단계	1.5-3	건설교통국	건축도시과	슬레이트 정비사업	10	
1.5단계	1.5-4	환경농지국	농촌마을지원과	도농협력기 운영	11	
1.5단계	1.5-5	복지보건국	저출산고령화대책과	행복마을 조성사업	12	
1.5단계	1.5-6	경제산업국	경제정책과	한도초합 발전사업	13	
2단계	2-1	농정국	농촌마을지원과	창조적 마을만들기(경관·생태)	14	
2단계	2-2	농정국	농촌마을지원과	창조적 마을만들기(소득·취업)	15	
2단계	2-3	농정국	농촌마을지원과	창조적 마을만들기(문화·복지)	16	
2단계	2-4	농정국	농촌마을지원과	창조적 마을만들기(신규마을조성)	17	
2단계	2-5	백양수산국	수산업과	어촌체험마을 조성사업	18	
2단계	2-6	문화체육관광국	문화정책과	농어촌 행복문화마을 만들기 조성	19	
2단계	2-7	환경농지국	농정정책과	주민주도형 녹색농촌 실현마을 조성	20	
2단계	2-8	건설교통국	건축도시과	공공디자인 공모사업	21	
2단계	2-9	건설교통국	건축도시과	농촌관광자 공동시설사업 시행사업	22	
2단계	2-10	자치행정국	정보통신과	농어촌마을 광케이블 보급사업	23	
2단계	2-11	농정국	농촌마을지원과	도시인 농촌유치 지원 사업	24	
2단계	2-12	경제산업국	경제정책과	마을기업 육성사업	25	
2단계	2-13	경제산업국	경제정책과	에너지 사회적기업 육성	26	
3단계	3-1	농정국	농촌마을지원과	창조적 마을만들기(마을공동체)	27	
3단계	3-2	문화체육관광국	문화정책과	문화특화마을 조성사업	28	
3단계	3-3	농정국	농촌마을지원과	창조적 마을만들기(마을공동체)	29	
3단계	3-4	환경농지국	농정정책과	농어촌마을 조성사업	30	

- 충남은 농촌 마을만들기에 직접 관련된 행정 사업 36가지 도출하여 역량단계별로 지원하는 모델을 구축중에 있습니다. 각종 교육 작은 사업에서 시작하여 중대형 사업으로 확장해가는 모델입니다.
- 주민교육과 경관개선, 사회적경제조직화, 농가공 및 직거래 유통, 중대형 인프라 정비 등입니다.
- 관련 행정 부서도 민간단체도 더욱 연계, 협력해야 가능한 모델입니다.

28

[참고3] 6차산업화 지역 시스템 : 지역별, 주체별, 사업별 협력

- 농가: 농사 규모의 축소와 작목/농법 전환 + 마을영농 + 농기구 개량
- 마을: 주민 협력을 통한 공동 대응(마을공동체농업, 농가공, 체험 6차산업)
- 행정: 읍면 단위로 소규모 농민가공센터와 로컬푸드 직매장 설치하여 지원



농가 스스로 + 마을 협력 + 읍면 지역화 + 행정 지원

3. 지자체 행정의 미래

“정책 변화에 행정 스스로 선제적 대응”

37

[참고] 공직 전문성 강화, 가장 효과적인 정책 1순위

(단위 : 명, %)

구분		사례수(명)	필수보직 기간 확대	전문직위 확대 및 활성화	다양한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 및 기회 확대	민간채용 확대로 공직 개방성 강화	경력개발 관련 인사 제도 활성화	기타
			보완장치1	보완장치3		보완장치 4		
전체		4.339	22.6	15.5	40.3	3.5	16.9	1.2
기관 유형	중앙부처	1.983	20.6	15.4	42.6	4.1	16.0	1.4
	광역자치단체	2.356	24.3	15.7	38.4	3.1	17.6	0.9
학력	고졸 이하	164	21.1	11.8	46.1	1.8	17.9	1.3
	전문대학 졸업	235	33.4	21.6	30.2	1.6	12.4	0.8
	대학(4년제)졸업	3.076	22.3	14.2	41.3	3.1	17.8	1.2
	석사졸업	755	20.8	17.1	40.4	4.7	15.9	1.1
	박사졸업	109	21.3	33.3	24.3	15.2	5.4	0.6

자료 : 한국행정연구원, 2021.01, 『2020년 공직생활실태조사』, 112쪽 부분 요약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 기회 확대’ >> ‘필수보직기간 확대’ >

경력개발 인사 제도 활성화 = ‘전문직위 확대 및 활성화’ > ‘민간 채용 확대로 공직 개방성 강화’

38

[참고] 문재인정부 「자치분권 시행계획」 (2019. 3. 발표, 130쪽)

- 1) 방향 : “지방공무원의 전문성 강화와 주민서비스 품질 제고”
 - 지방 인사시스템의 혁신을 중요 과제에 포함
- 2) 직무 특성에 따른 ‘직위 유형 구분 및 보직 관리 차별화’ 제시
- 3) 행정의 직무 특성에 따른 보직 구분
 - **장기근무형(전문가형)과 순환근무형(관리자형)**
- 4) **필수보직기간 확대**
- 5) **전문직위에 대한 가산점도 의무적으로 부과**
- 6)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2019.6.18.)
 - ‘직렬’은 법령으로 여전히 정해져 있지만 을 통해 **지자체 조례로 ‘직류’ 신설이 가능**하게 개방(제3조1)
 - 지자체 특성을 반영한 직류 신설 가능. 예를 들어, 공동체나 농촌재생, 도시재생, 사회적경제 등의 직류를 조례로 신설

39

[정리] 중앙정부 제도적 정비 + 지자체 행정 노력 → 민간단체, 공무원노조, 지방의회 등의 공동노력 필요

1. 농촌정책의 총괄조정 역할 강화 = 전담부서 설치

직렬주의 극복, 주민 관점에서 유사 업무들의 재배치, 창구 명확화

2. 행정의 업무협조체계 구축 = 행정지원협의회 설치

중앙정부 정책의 융복합(협업) 강조, 인센티브 검토, ‘전문직위군’ 제도 검토

3. 순환보직제의 단점 극복 = 행정의 정책 전문성 강화

필수보직기간 준수, 공모직위/전문직위 확대 > 개방형, 임기제 채용 확대

→ 행정개혁의 주인공으로 공무원 스스로 전면에 나서는 노력

농촌 현장은 사회구조적 문제와 맞물려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고, 중앙정부 정책은 빠르게 변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지자체 행정은 어떤 길을 선택해야 하는가?

‘자치’단체 공무원이라면 당연히 지방자치의 관점에서 주인공 의식을 가지고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마땅하다. 우리나라 헌법(제7조2)이 직업공무원 제도를 채택하고 정치적 중립성과 신분을 보장하면서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주민주권을 제도적으로 구현하도록 요구하는 것도 이런 맥락이다.

어쩌면 “개혁의 대상이 될 것인가?, 아니면 스스로 개혁의 주체가 될 것인가?”란 질문일 수도 있다.

40



충남연구원 충남마을만들기지원센터
ChungNam Institute

제4회 충남마을만들기 대화마당(금산)

【2부】 사례발표 1

“마을만들기 지속을 위한 공무원의 역할”

- 정철 팀장(금산군 건설교통과 마을가꾸기팀)

금산군 마을만들기와 행정공무원의 역할

금산군 마을만들기와 중간지원조직

- ▶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추진
 - ▶ 권역단위사업, 거점면, 읍면중심지, 기초생활거점사업, 신활력플러스사업
- ▶ 3농혁신
 - ▶ 마을발전계획 수립
- ▶ 희망마을 만들기사업
 - ▶ 3농혁신대학,
 - ▶ 중간지원조직의 필요성
- ▶ 금산군마을만들기지원센터 설립
 - ▶ 2018.08월 행정지원 센터 설립

마을만들기 상황과 지원시스템

- ▶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우수사례
 - ▶ 신안권역, 마전권역 거점면, 금산읍농촌중심지선도지구
- ▶ 부진한 사업지구
 - ▶ 붉은덩이권역, 진악산권역, 추정장대권역
- ▶ 운영비 확보의 문제 발생
 - ▶ 방문, 체험활동에 의존한 단순한 소득구조
- ▶ 행정의 운영비 지원
 - ▶ 코로나사태에 따른 운영난에 대한 최소한의 지원
- ▶ 중간지원조직의 민간 위탁 운영
 - ▶ 2020년9월 금산&사람들 사단법인에 위탁 운영

총괄 조정부서 신설 혹은 지정

- ▶ 행정부서의 변화
 - ▶ 농촌개발팀 ⇒ 2017.07월 행복마을팀 신설 ⇒ 2019.07월 마을가꾸기팀 합병
- ▶ 2022년 농촌협약 대상지 선정
 - ▶ 농식품부 전제조건 ⇒ 전담부서 지정을 위한 농업정책실로 팀 이관 예정
 - ▶ 농업유통과 ⇒ 농업정책실 상향
 - ▶ 농촌관광, 6차산업, 푸드플랜 등 세부사업 담당하는 팀과 연계 협력

행정의 업무협조체계 강화

- ▶ 희망모임 : 부서장들과 군수, 부군수 의견 나눔터
 - ▶ 매주 화~금요일 08시부터 의견 나눔모임
 - ▶ 건설·산업, 농업·산림, 복지·환경, 관광·행정등 4개분야
 - ▶ 당면현안과제, 주요사업의 추진방안, 민원사항등
- ▶ 협업체계 구축을 위하여
 - ▶ 마을가꾸기팀, 도시재생팀의 협업
 - ▶ 마을만들기지원센터, 도시재생센터의 교류
- ▶ 금산군 살기좋은 마을만들기 지원등에 관한 조례 제정 운영
 - ▶ 행정협의체 운영지원등에 대한 지원체계 구축

순환보직제 단점 극복을 위한 제도적 장치 필요

- ▶ 담당 부서의 분리..
- ▶ 조직정비에 따른 분리된 부서의 재합병
- ▶ 업무의 난이도에 따른 직원배치.
- ▶ 잦은 인사이동으로 인한 업무 공백 및 지연

마을만들기 업무를 맡고 있으면서...

- ▶ 주민과 함께 이야기 하면서 여러 방향의 사업 추진에 대한 기대
- ▶ 마을만들기는 혼자가 아닌 다함께 참여하는 사업
- ▶ 욕심과 편견, 독선을 버리는 것이 중요
- ▶ 개인의 사사로운 욕심이 문제를 발생하게 됨.
- ▶ 행정, 민간, 중간지원조직이 다 함께 하는 마을 만들기.



【2부】 사례발표 2

“마을만들기 지속을 위한 공무원의 역할”

- 심장보 팀장(당진시 공동체새마을과 마을공동체팀)

지속가능한 농촌, 주민이 행복한 마을자치공동체를 위한
마을만들기 지속을 위한 공무원의 역할



심 장 보 마을공동체팀장

1. 2020년 마을만들기 사업추진 현황

□ 농식품부 시군역량강화사업 추진 현황

명칭	예산	내용	대상	비고
조사연구	91,111천원	행정리 마을전수 조사	11개 읍면 225개 행정리	이월 예산
	13,600천원	주민 수요조사	인터뷰: 마을리더 및 활동가 22명 설문: 일반시민	
지역인적 자원육성	20,200천원	마을대학 1기	현장포럼, 희망마을선행사업 대상 마 을리더	
	20,200천원	마을대학 2기	마을리더, 현장활동가 등 40명 내외	
	20,200천원	마을공동체만들기 (연극)	신평면 신송1리, 정미면 하성리	
	21,000천원	마을공동체만들기 (목공예)	관내 중고등학생	
교육 및 컨설팅	10,000천원	현장포럼	송산면 부곡리	
홍보 마케팅	14,800천원	권역 홍보	금초권역	2020년 예산
	18,000천원	권역 홍보	검은들권역	

2. 2020년 마을만들기 사업추진 현황

□ 마을만들기 역량단계별 행정사업 추진현황

사업명칭	사업예산	대상지구	비고
마을만들기 소액사업	60백만원 (5개 마을)	벽화그리기: 2개 마을(정미면 산성리, 우산리) 주민 주도형 작은 사업(화단정비): 3개 마을(송산면 오도리, 대호지면 적서리, 신평면 도성2리)	도비 매칭
농촌현장포럼	30백만원 (10백만원*3개)	정미면 산성리, 송산면 삼월리, 대호지면 적서리	지방이양 자체 시비
희망마을 선행사업	150백만원 (30백만원*5개)	송악읍 반촌2리, 신평면 신흥1리, 신송2리, 도성2리, 송산면 반촌리	도비 매칭
마을만들기 (자율개발)	200백만원 (100백만원*2개)	고대면 진관1리, 신평면 신송1리	지방이양 (도비매칭)
기초생활거점 육성사업	1,115백만원	계속_우강면(40억), 대호지면(40억), 정미면(40억)	국비 매칭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3,372백만원	계속_고대면(60억), 면천면(60억)	

3. 2021년 마을만들기 사업추진 현황

□ 농식품부 시군역량강화사업 추진 현황

명칭	예산	내용	대상	비고
지역인적 자원육성	5,000천원	마을대학 3기	시민 누구나	
	5,000천원	마을대학 4기	지역내 복지분야 종사자, 시민 누구나	
	8,000천원	마을해설사양성교육	마을주민, 현장활동가	
	24,670천원	찾아가는 마을공동체교실 (사업계획서, 실무회계정산)	마을주민,	
	21,000천원	e-마을만들기학교	시민 누구나	
지역활성화	12,000천원	우리동네 마을캠프	산성리, 순성왕매실영농조합	
홍보 마케팅	14,800천원	권역 홍보	금초권역	
	18,000천원	권역 홍보	검은들권역	

4. 2021년 마을만들기 사업추진 현황

□ 마을만들기 역량단계별 행정사업 추진현황

사업명칭	사업예산	대상지구	비고
마을만들기 소액사업	40백만원 (10개 마을)	환경 : 산성리, 우산리, 자개2리, 합덕리, 신송1리 / 마을 소득 : 자개1리, 송산새싹영농조합법인(부곡리) / 마을 문화 : 금초사랑 / 동아리 교육 : 다락동, 우리누리마을공동체 / 동아리	도비 매칭
농촌현장포럼	45백만원 (6개 마을)	정미면 우산리, 송산면 오도리, 우강면 소반리 순성면 갈산리, 석문면 삼화3리, 면천면 성상2리	지방이양 자체 시비
희망마을 선행사업	150백만원 (30백만원*5개)	송산면 삼월리, 정미면 우산리, 대호지면 적서리 검은들권역	도비 매칭
마을만들기 (자율개발)	500백만원 (100백만원*5개)	고대면 진관1리, 신평면 신송1리, 합덕읍 합덕리, 송악읍 반촌리, 송산면 부곡리	지방이양 (도비매칭)
기초생활거점 육성사업	16,000백만원	계속_우강면(40억), 대호지면(40억), 정미면(40억) 순성면(40억)	국비 매칭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3,372백만원	계속_고대면(60억), 면천면(60억)	

1. 권역 조성사업

(단위: 억 원)

지구명	총 사업비				사업기간	사업내용
	계	국비	도비	시비		
검은들권역	72	48	5	14 <5>	2006~2012	매실가공시설, 매실한과시설, 공공체험시설, 건강관리센터, 문화복지센터, 도농교류센터, 체육공원, 지역역량강화 등
황토권역	43	29	2	10 <2>	2011~2016	권역센터, 다목적복지회관, 자립형복지회관, 무선방송설비, 웰빙한우촌, 저수지주변경관개선, 지역역량강화 등
금초권역	47	33	2	12	2011~2017	권역센터, 농업농촌체험장, 금초정보센터, 자립형복지회관, 생활형복지회관, 수변공원조성, 금초경관정비, 지역역량강화 등
솔외권역	27	19	1	7	2015~2020	솔외다목적센터, 커뮤니티시설리모델링(3개소), CCTV, 주민휴게시설, 지붕정비, 지역역량강화 등

2.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일반지구)

(단위: 억 원)

지구명	총 사업비				사업기간	사업내용
	계	국비	도비	시비		
고대면	52	36	2	14	2016~2020	다목적복지회관, 산책로정비, 테마쉼터, 테마거리, 간판정비, 지역역량강화 등
면천면	56	39	2	15	2018~2022	작은목욕탕, 작은도서관, 공동식당운영, 공방조성, 테마거리조성, 지역역량강화 등

(단위: 억 원)

4. 마을만들기

지구명	총 사업비				사업기간	사업내용
	계	국비	도비	시비		
장정리	4.88	3.42	0.24	1.22	2018~2020	장정천 생태하천, 생태공원 조성 등
진관 1리	5.0	-	-	5.0	2020~2022	마을회관리모델링, 마을안내판, 지역역량강화 등
신송 1리	5.0	-	-	5.0	2020~2022	굴뚝리모델링, 굴뚝조형물설치, 가로등설치, 지역역량강화 등



**“마을로 하나되는 우리
당진을 디자인하다”**

1. 권역 조성사업

[illegible]

2.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일반지구)

구분명	종·사업명				사업기간	사업내용
	개	분야	조각	세부		
교대원	52	36	3	14	2016~2020	다문화복지지원, 산책로형제, 태아양성, 태아기초, 건강관리, 지역자원개발 등
연일원	56	39	2	15	2018~2022	직능특별단, 직능전문, 공동시설개발, 공동주택, 태아기초조사, 지역자원개발 등

3. 기초생활거점육성사업

지주명	출자사건				사건내용
	개	내비	노비	내비	
영리부	40	28	*	12	2019~2022 공공개발 총 6 권역개발사업으로, 현재사업 중(영리부개발사업)으로, 지역개발사업
대우지전	40	28	*	12	2019~2022 대우지전개발사업, 대우지전개발사업(대우지전개발사업), 4.4선로 개발 사업, 지역개발사업
우암면	38	27	*	11	2018~2022 역사유물전시관, 우암면유물전시관, 부속유물전시관, 우암면유물전시관, 지역개발사업

4. 마을만들기

구분	총 사업비				사업기간	사업내용
	세	국	도	기타		
지방회	4,88	3,42	0,34	1,22	2018~2020	장원동 생활터전, 생활문화 조성 등
연속 1회	5,0	-	-	5,0	2020~2022	마을문화의 다양성, 마을공동체, 지역경제활성화 등
연속 1회	5,0	-	-	5,0	2020~2022	골목거리만들기, 골목초청활동 등, 가로정비사업, 지역경제활성화 등

마을만들기와 마을만들기지원센터 이해



✓ 마을만들기란?

마을에 살고 있는 주민 스스로
여러 생활 환경 문제를 해결하고
마을 공동체를 **회복**하기 위해 펼치는
일련의 활동



✓ 마을만들기 지원센터란?

주민, 행정, 지역사회가 교류하고 협력하여
마을만들기를 추진할 목적으로 설립한
중간지원조직

✓ 중간지원조직이란?

- 행정과 주민간 **가교역할**
- 마을에 **밀착하여** 마을문제를 종합적으로 진단
- 사업 초기단계부터 장기간에 걸쳐 해결책 모색

✓ 왜 중간지원조직이 만들어졌나?

- 마을사업이 다양하게 흩어져 전체를 이해하기 힘들다
- 행정지원사업이 일회성으로 끝난다.
- 담당공무원이 순환보직제로 자주 바뀐다
- **행정사업자, 전문조직, 거점공간이자 민간전담창구**

마을만들기지원센터 주요 업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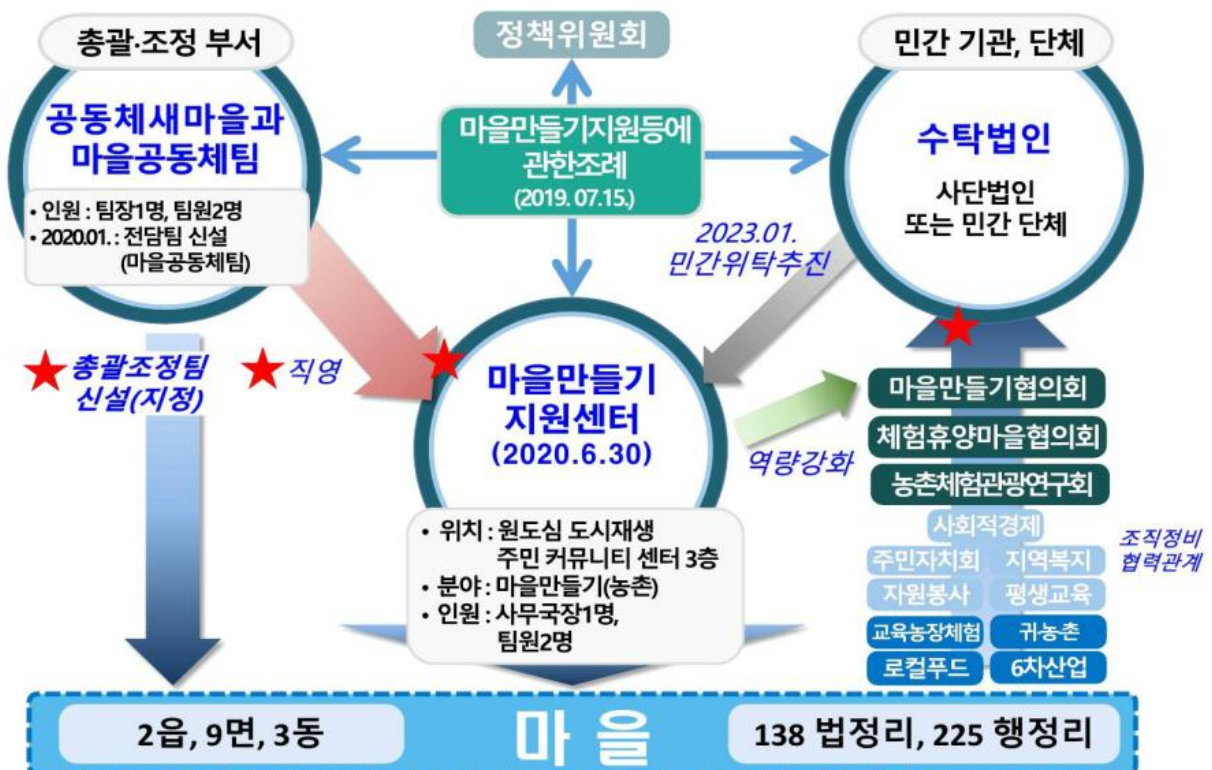


2020. 06. 30 당진시마을만들기지원센터 개소식



2020. 06. 30 당진시마을만들기지원센터 개소식 보도기사 발췌

당진시 마을만들기지원센터(행정직영)



2021년 당진시마을만들기지원센터 비전



농촌현장포럼(6개소)



당진시 마을대학(3회)



당진시 마을해설사 양성과정



당진시 마을캠프 과정(정미면 산성리)



당진시 마을캠프 과정(순성면 왕매실조합)



당진시 e-마을만들기 학교 제작 및 교육



가수 미소와 함께하는 당진시 e-마을만들기 학교 개.봉.박.두!
개강예정 2021년 9월 4주

당진시 e-마을만들기학교란?
당진시민, 마을러디 및 마을활동가들 대상으로 지속가능한 마을공동체 활성화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마을만들기 관련 상식 학습 수요 충족을 위해 만들어진 온라인 강좌 프로그램입니다.
* 해당 과정 모두 수강한 경우 당진시마을만들기지원센터 마을만들기사업 참여시 교육실적 인정 및 인센티브 부여

○ 수강방법
*회원가입 당진시 평생학습포털 (<https://www.dangjin.go.kr/ll.do>)

step.1	step.2	step.3	step.4	step.5
당진시 평생학습포털 접속	e-당진	사이버 공간	e-당진	e-마을만들기 학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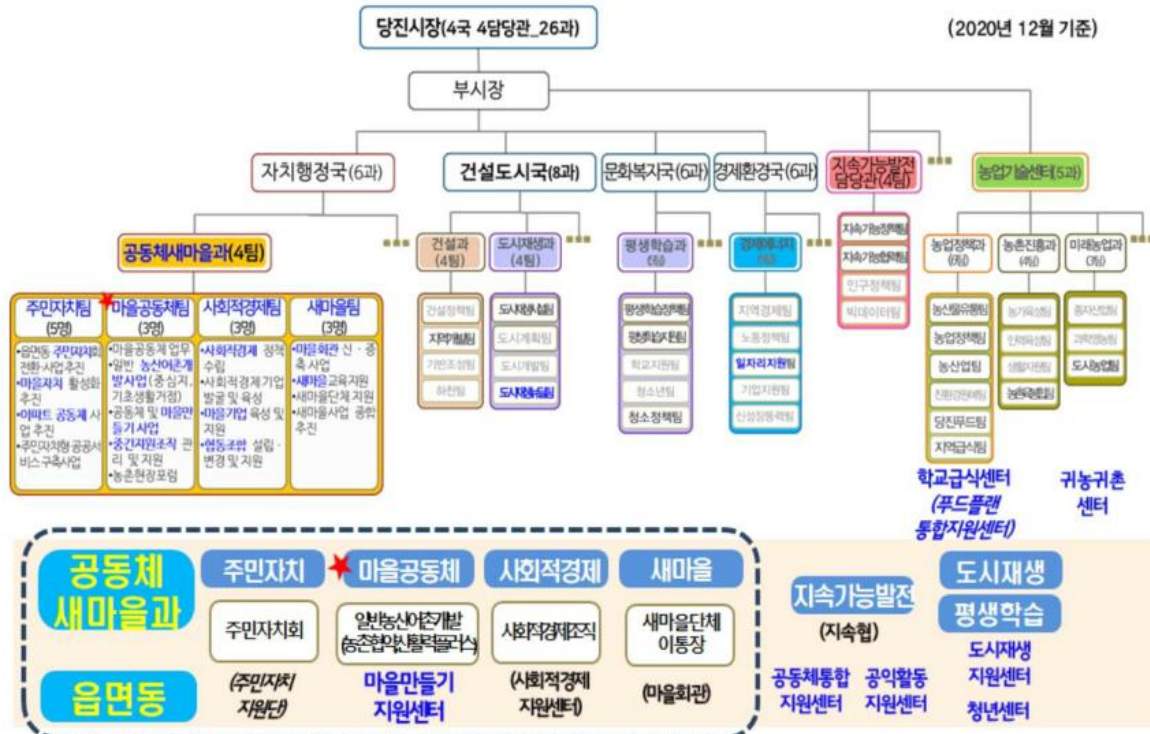
○ 교육프로그램

구분	내용	강사	대상
마을만들기란?	1교시	· 마을만들기의 의미	구치원 연구소장 충남도 마을만들기
	2교시	· 농촌마을정책과 사회적 운동	
	3교시	· 마을만들기 사업추진 시스템	
중남형 마을만들기 및 중간지원조직의 역할 이해	1교시	· 중남형 마을만들기의 이해	정석훈 센터장 충남도 마을만들기 충남지역사회교육지원센터
	2교시	· 중간지원조직의 역할 이해	
공동디자인 마을공동체 이해	1교시	· 마을디자인 마을만들기의 연계성	서형민 센터장 충남도 마을만들기 충남지역사회교육지원센터
	2교시	· 마을공동체와 주민의 역할	
마을사업과 마을활동가의 역할	1교시	· 마을사업과 활동가의 정의 및 영역	이철규 센터장 충남도 마을만들기 충남지역사회교육지원센터
	2교시	· 타지역 마을만들기 및 활동가 우수사례	

□ 업무 초기단계 : 마을만들기 학습의 중요성

- 신설된 과에 배치되고 신설된 팀에서 근무하는 것이 어려움
 - 주요 업무에 대한 방향 설정과 추진, 관련 예산 수립과 조례 제정
 - 중앙정부와 광역의 동향 파악 및 업무자체에 대한 전문성 제고 필요
- 마을만들기의 개념과 중요성 파악 필요
 - 주민 및 공무원들로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음
 - 농식품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지침이 매우 전문적인 내용을 포함
 - 사업지침이 매년 바뀌는 상황에서 마을공동체팀내 3명만 근무 업무량이 과중함
 - 2019 당진시마을공동체만들기 컨설팅 보고서가 큰 도움
 - 빠른 업무파악을 위해 초기 학습 및 업무 연찬의 매우 중요함

□ 총괄 조정부서의 신설



□ 물리적 통합을 넘어 화학적 통합이 필요

- 농촌 마을만들기 전담 팀의 신설과 총괄·조정 역할 강화
- 관련 행정 부서 사이의 업무협조 체계 구축
 - 주민자치, 마을만들기, 사회적경제, 새마을 업무
 - 신활력플러스 공모사업 신청을 통한 협력체계 구축 활용
- 민관협치 관점에서 미래 지향적인 정책 수요 반영

□ 업무연찬 강화와 업무협조체계 구축

- 정책간의 연계·협력이나 업무 조정이 필요함
- 4개 팀의 업무연찬 강화를 통한 상호연계성이 높은 사업의 업무 재배치나 협력관계를 지속적으로 검토
- 읍면동 주민자치회 운영과 사회적 경제조직 육성, 마을회관 리모델링 등



사업개요

3

당진시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

당진시

● 1단계 추진
○ 2단계 추진 예정

▶ 개요

사업명 신활력, 농촌협약으로 가는 마중물, 농촌활력지원단과 함께하는 도농상생 당진

대상지역 충청남도 당진시 고대면 외 7개 면지역

거점시설 충청남도 당진시 백암1길 61

사업기간 2022년~2025년(4년간)

사업비 7,000백만원(국비4,900백만원, 지방비2,100백만원)


▶ 사업목표 및 전략

농촌활력 주체 발굴 및 조직화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통한 농촌경제 생태계 조성

함께 만드는 도농상생네트워크 구축


사업개요




7

당진시 자산 ①


면단위 주민거점공간 조성




다육적 복지회관
(2021년 준공)





대호하늬바람센터
(2022년 준공)





희망나눔센터
(2022년 준공)




 신활력추진단(거버넌스), 시단위, H/W 신축비 지원

 1단계 추진, 농촌중심지,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유휴공간 활용

 농촌활력지원단(면지역 주민지원조직)

 2단계 추진 예정



약시우강 사당채
(2022년 준공)

사업개요



8

당진시 자산 ②

우리 지역을 스스로 만들어 가고 싶어하는 주민들이 있어요

마을계획단

우리마을 계획은 우리가 준비해요

300명

- 14개 읍·면·동에서 주민 참여로 마을계획단 운영 중
- 매년 주민 스스로 마을발전 계획 수립

마을총회

우리마을 계획은 우리가 결정해요

3,000명

- 14개 읍면동에서 매년 3,000여 명이 참여하는 주민총회 개최
- 주민 손으로 읍면발전계획 선정

사회적경제조직

사회적 경제방식으로 농업·농촌의 해법을 찾아요

76개

- 할매들의 반란, 백석올미마을
- 사회적 경제, 농업·농촌의 새로운 활력을 충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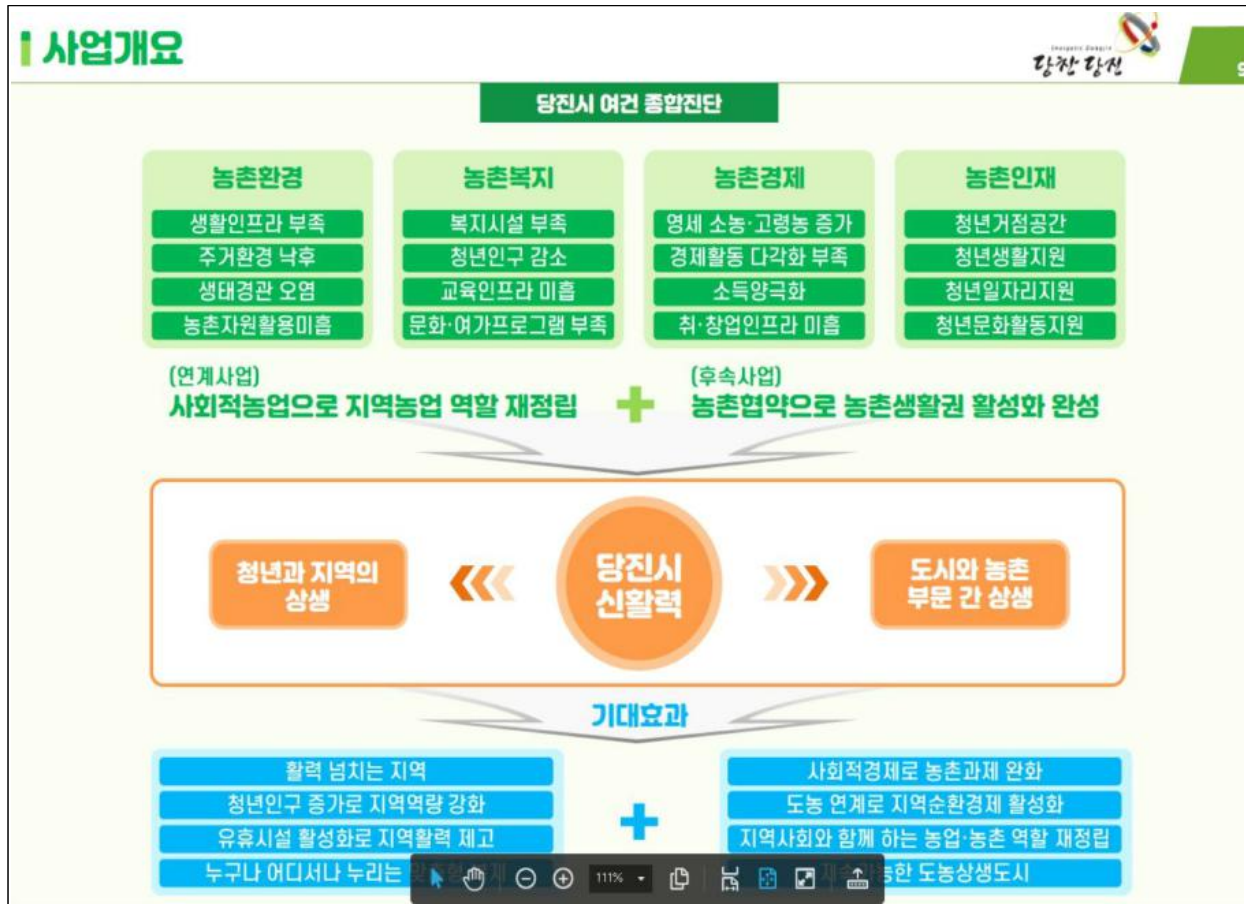
귀농·귀촌인

농촌에서 함께 살아가고 싶어요

nnn명

- 귀농귀촌인협의회, 귀농지원 센터 운영
- 재능기부를 통해 지역주민과 교감·소통

사업개요



기본구상



비전	신활력, 농촌협약으로 가는 마중물 농촌활력지원단과 함께 도농상생 당진		
목표	농촌활력 주체 혁신	누구나 어디서나 누리는 삶의 질	함께 만드는 도농상생사회
전략	혁신주체 발굴 및 조직화	사회적경제 활성화	공동체플랫폼 구축
과제	현장밀착형 액션그룹 형성	농촌형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	공동체적 연대·협력 생태계 구축
계획 과제	1. 인재발굴·역량강화 2. 농촌활력지원단 운영 3. 농촌활력지원단 활동백서	4. 사회적농업 활성화프로젝트 5. 농촌형 사회적경제 시범사업 6. 농촌형 사회적경제 공모사업	7. 공동체플랫폼 구축 8. 사회적경제 복합매장 운영 9. 신활력컨테스트
액션 그룹	농업·농촌분야 액션그룹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업회의소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위원회 체험휴양마을협의회 청년농업인모임 마을만들기협의회 백석올미마을 귀농귀촌인연합회 로컬푸드연합회 		지역사회단체 액션그룹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주민자치회연합회 사회적기업협의회 청소년재단 종합사회복지관 복지재단 이통장협의회 청년타운나래 지역아동센터

당진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을 위해 당진시 각계각층과 고민했습니다

농촌 핵심공간인 面에서 주민들과 일상적으로 호흡할 수 있는
면단위 농촌활력지원 주체를 발굴·조직화하기 위해
지역의 많은 시민사회단체가 공감하고 고민해주셨습니다.

주요 기관·단체 간 업무양해각서 체결



1 단계별 추진전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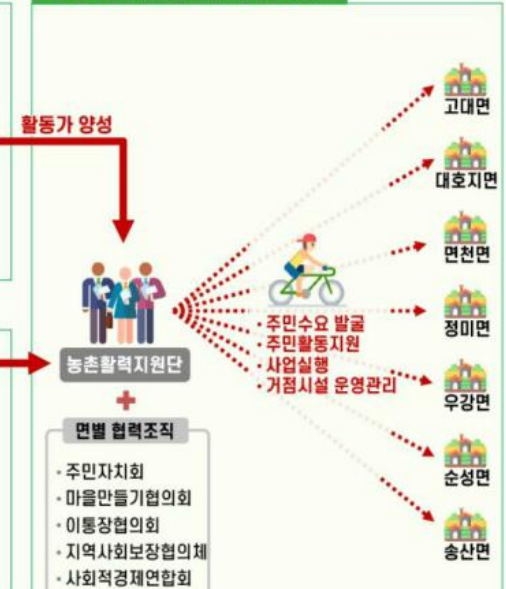
1단계

혁신주체 발굴 및 조직화

농촌활력지원단 발굴 및 조직화



농촌활력지원단 배치 및 활동



신활력 거버넌스 및 공동체플랫폼 구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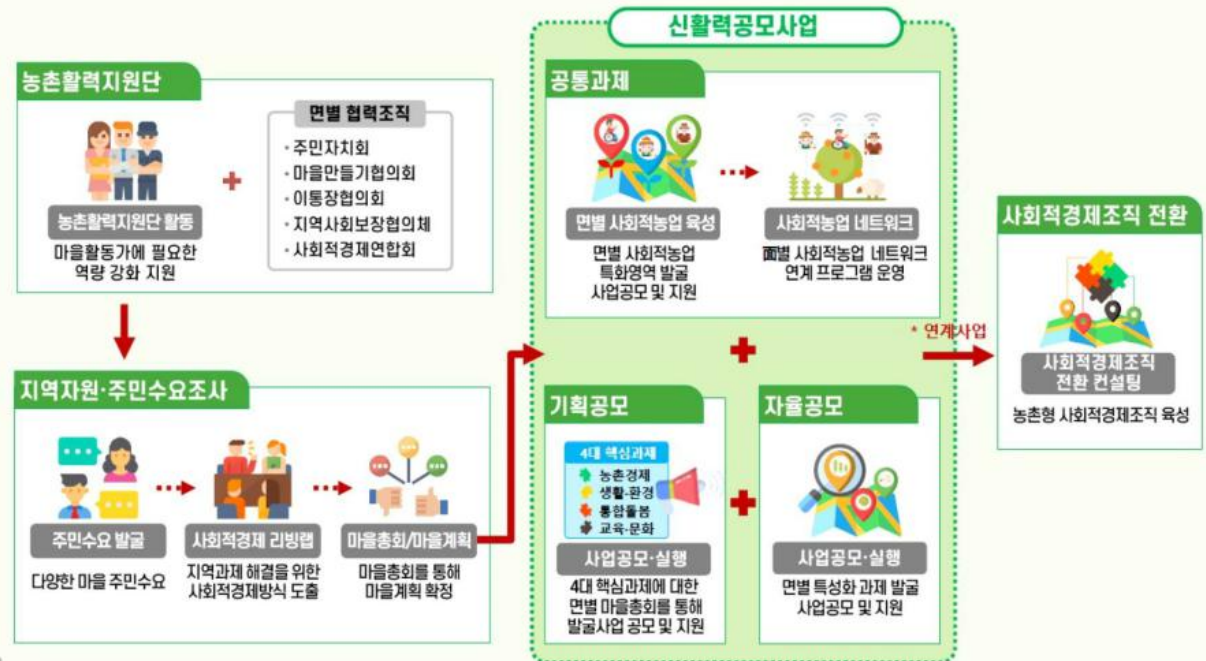
I 단계별 추진전략



13

2단계

농촌 사회적경제 활성화



I 단계별 추진전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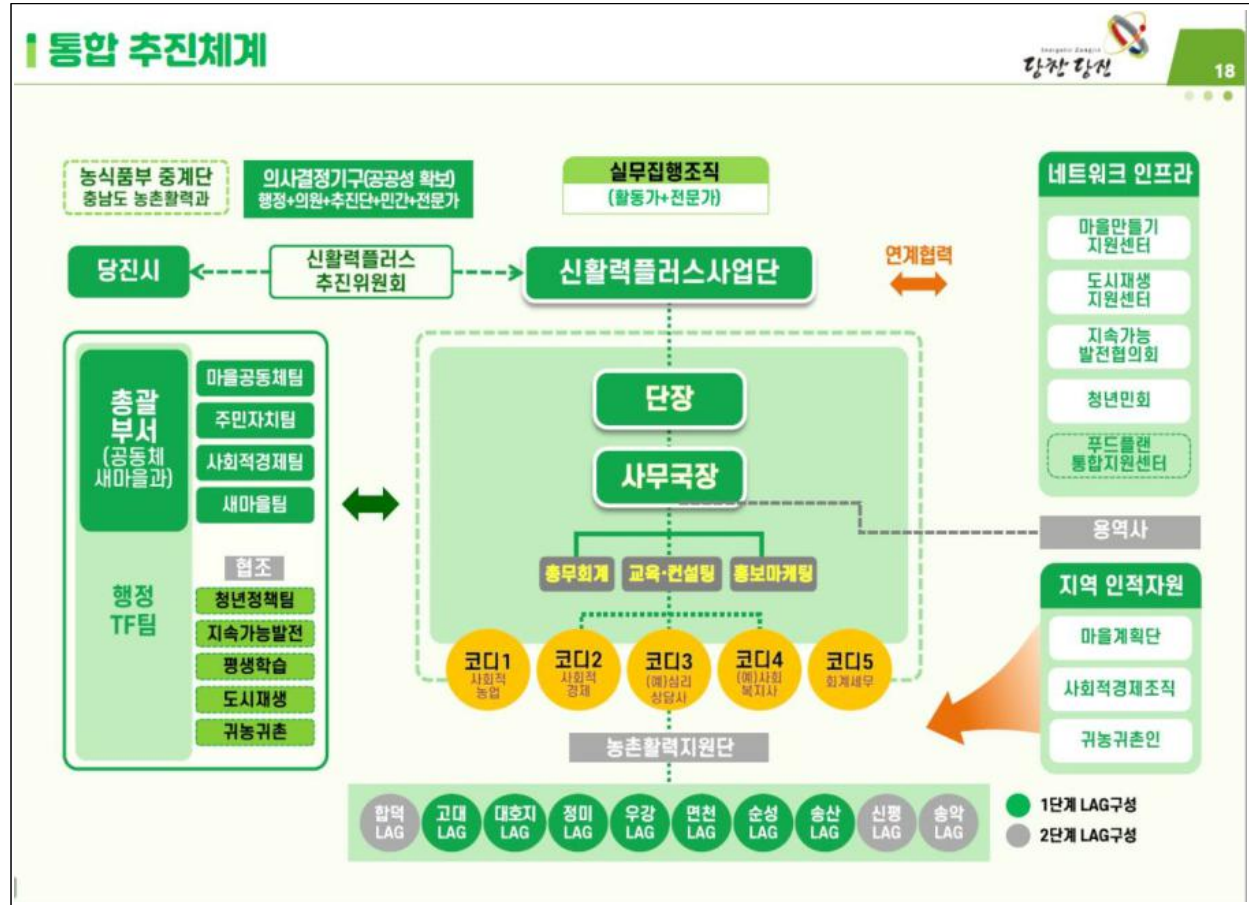


14

3단계

신활력 거버넌스 및 공동체플랫폼 구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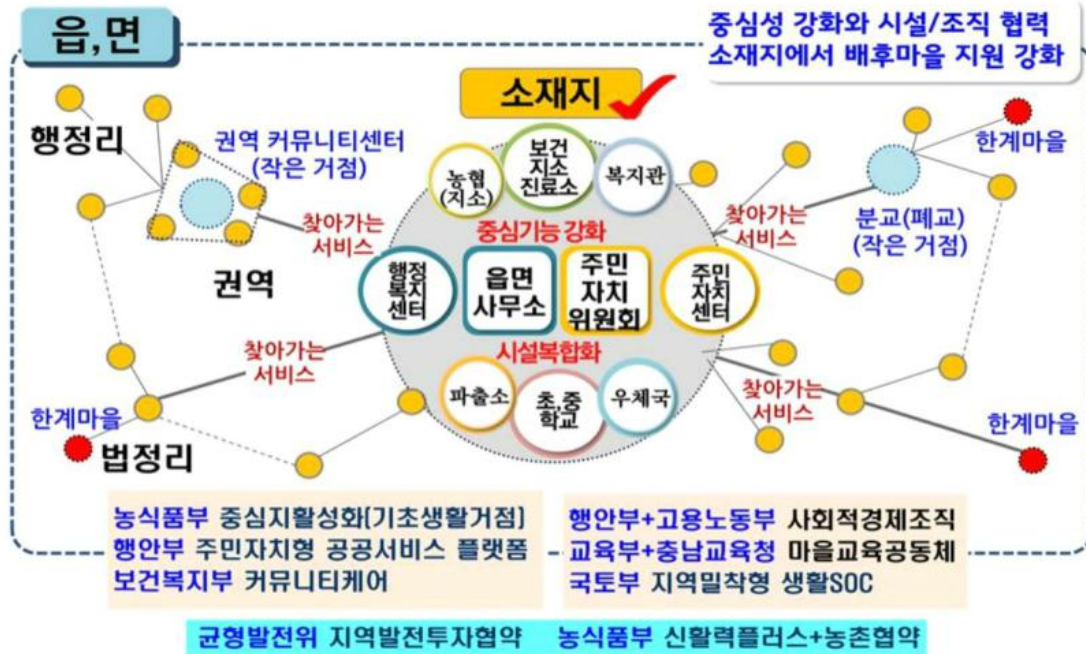
□ 행정의 업무협조체계 강화 : 인센티브 필요

- 별도의 행정지원협의회를 구성하지 않고 신활력플러스 행정T/F팀이 대신함
 - 주민자치, 사회적 경제, 지속가능발전, 청년, 사회복지, 사회적 농업, 도시재생, 마을 교육공동체, 농촌관광, 6차산업, 푸드플랜 등 관련 팀들이 포함
 - 내년도 공모추진 중인 농촌협약 행정협의회에도 동일하게 구성되어 있음
 - 행정T/F팀 을 바탕으로 행정지원협의회를 구성 및 운영할 계획이며 분기별로 정기회의도 개최할 예정임
 - 신활력플러스 주요 사업계획도 연계하여 구체적인 협력방안을 검토할 예정임
 - 당진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 및 시설물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 추진중
- 협업에 대한 경험이 많지 않고 연계사업 추진이 어려움
 - 인사고과 반영, 우수 성과급 보장, 국내외연수 혜택 제공 등 필요

□ 당진시 마을만들기 발전방향



□ 마을만들기와 관련 정책과의 연계협력 방안



□ 순환보직제 단점 극복 : 제도의 실질적인 활용성이 중요

• 순환보직제의 단점을 극복 필요

- 시군의 경우 담당 팀장이나 담당자가 보통 1~2년 근무하고 다른 부서로 배치
- 마을만들기 사업은 전문적이고 특히 주민과의 소통이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반드시 보완장치 필요
- 제도가 있다고 모두 만능은 아니고 도입과 운영 과정에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함
- 공무원 필수보직기간(2년) 부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음
- 공모직위제를 통한 인사고과에 인센티브를 반영하고 승진의 중요한 보직으로 만든다면 마을만들기 사업 추진도 원활할 것임
- 담당자의 전문관 지정을 통한 인사가점 부여 및 수당 지급을 통한 우수 공무원 활용 기대

□ 농촌마을정책의 민관협치형 시스템 구축과 강화

- 기본인식 : 자치분권과 농촌협약 등의 정책동향에 선제적으로 대응
- 행정지원협의회 설치 및 운영 : 업무연찬 강화(특히 공동체새마을과)
- 공동체새마을과 내부의 업무협력 강화와 성공사례 도출
- 정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 : 농촌협약 공모 연계
- 민간단체 협력 네트워크 구축(법인화) : 무리하지 않고 단계적으로 추진

□ 중간지원조직 운영 경험축적과 민간위탁의 지역공감대 확산

- 기본인식 : 통합형 중간지원조직의 민간위탁 절차를 체계적으로 준비
- 행정직영 센터의 경험을 1년간 더 축적하고 지역공감대 형성
- 공동체 전담 과 설치 및 운영 정책 워크숍 개최

민관 통합거버넌스 구축 방향



※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는 시민과 각 영역에서 활동하는 민간단체, 전문가 등의 네트워킹을 통해 민간통합 네트워크 구성 지원

□ 행정의 혁신적이고 능동적인 변화로 민간에 모범 필요

- 마을만들기 사업은 주민 스스로 의제를 발굴해 행정사업으로 만드는 것이고 주민 주도 살기 좋은 마을만들기가 가능함
- 주민, 중간지원 조직, 행정이 삼위일체가 되어야 함
- 행정은 특성상 민간을 관리하고 통제하기를 원함
 - 행정이 먼저 변하고 민간에 모범을 보여야 함
- 행정 내부에서 마을만들기와 공동체 활성화에 대한 학습 및 관련 부서와의 소통과 협력체계 구축 필요
- 주민과 중간지원조직을 이해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지원 필요
- 공무원들부터 먼저 학습해서 급변하는 정책 환경속에서 올바른 마을만들기가 될 수 있도록 행정조직의 혁신적이고 능동적인 변화가 반드시 필요함





충남연구원 충남마을만들기지원센터
ChungNam Institute

제4회 충남마을만들기 대화마당(금산)

【2부】 설문조사 결과 발표

“행정지원체계 정비”에 대한 이해관계자 설문조사”

- 이윤정 책임연구원(마을연구소 일소공도 협동조합)

행정 지원체계 정비를 둘러싼 이해관계자 설문조사 결과

2021.09.24.
마을연구소 일소공도 이윤정

조사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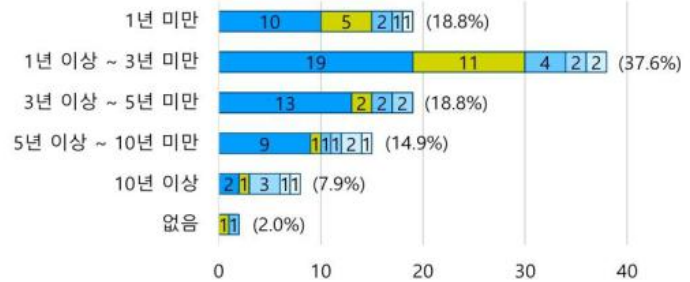
- ❶ 조사목적 : 마을만들기 행정의 지원체계를 왜, 어떻게 정비할 것인가에 대한 이해관계자들의 인식 파악
- ❷ 조사기간 : 7월 8일 ~ 7월 18일
- ❸ 조사방법 : 구글 온라인 설문지

응답자(총 101명)



- 중간지원조직 상근자 및 활동가
- 행정공무원
- 마을주민
- 마을위원장(전직 및 현직)
- 컨설팅사 및 연구자
- 수탁법인 상근자 및 임원

활동기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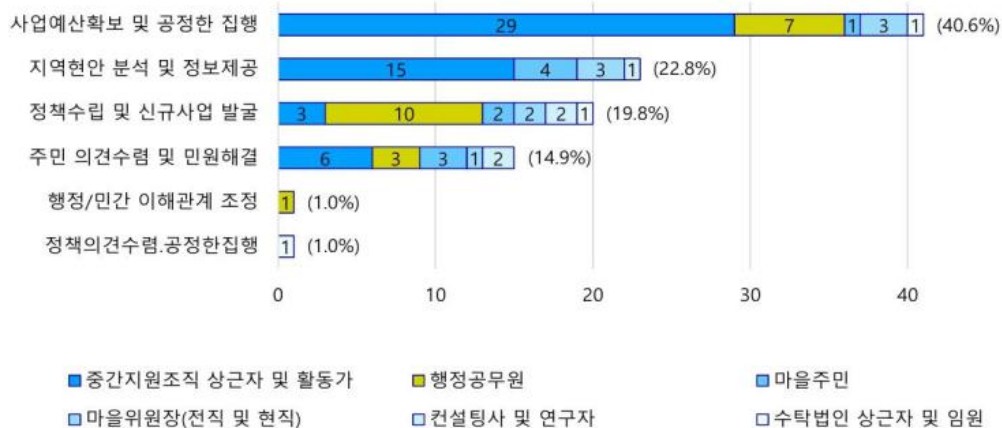
- 중간지원조직 상근자 및 활동가
- 행정공무원
- 마을주민
- 마을위원장(전직 및 현직)
- 컨설팅사 및 연구자
- 수탁법인 상근자 및 임원

2021/07/30

민간 네트워크 법인의 운영을 둘러싼 이해관계자 설문조사 결과

3

행정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무엇이라고 생각할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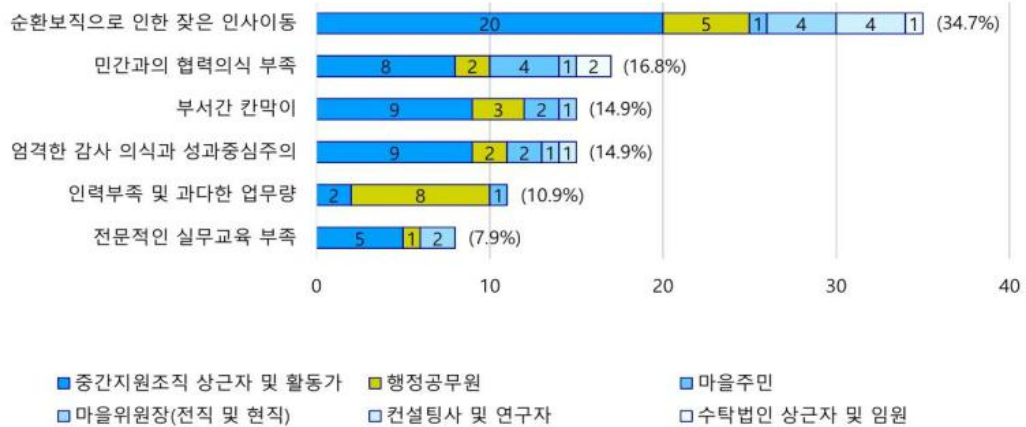
- 중간지원조직 상근자 및 활동가
- 행정공무원
- 마을주민
- 마을위원장(전직 및 현직)
- 컨설팅사 및 연구자
- 수탁법인 상근자 및 임원

2021/09/24

행정 지원체계 정비를 둘러싼 이해관계자 설문조사 결과

4

행정의 가장 큰 애로사항(문제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할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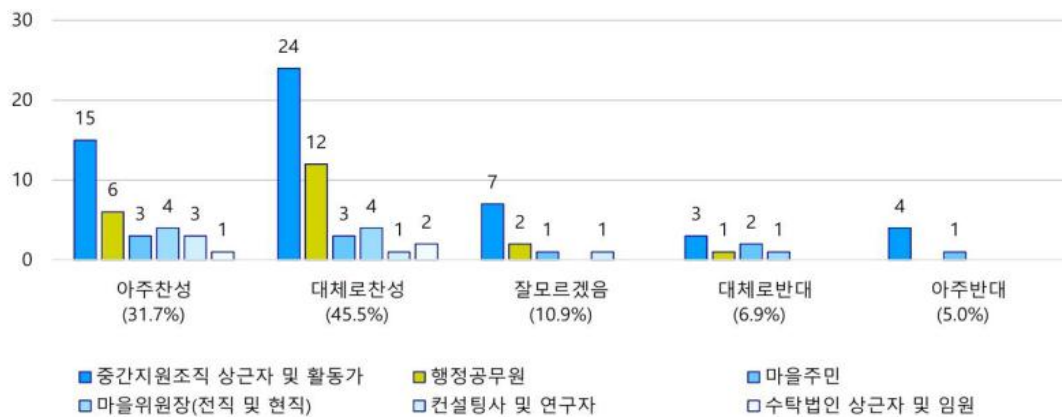
2021/09/24

행정 지원체계 정비를 둘러싼 이해관계자 설문조사 결과

5

행정 지원체계 정비와 관련된 여러 쟁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쟁점1. 마을만들기 총괄조정부서는 주민자치, 사회적 경제 업무를 포함하여 '과' 규모가 적절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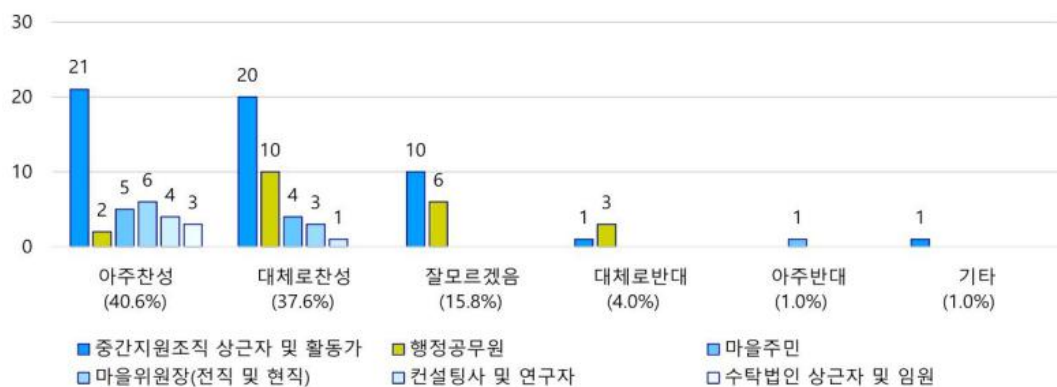


2021/09/24

행정 지원체계 정비를 둘러싼 이해관계자 설문조사 결과

7

쟁점2. 행정지원협의회 운영은 반드시 조례에 명시해야 하고, 정기 운영해야 한다



※ 기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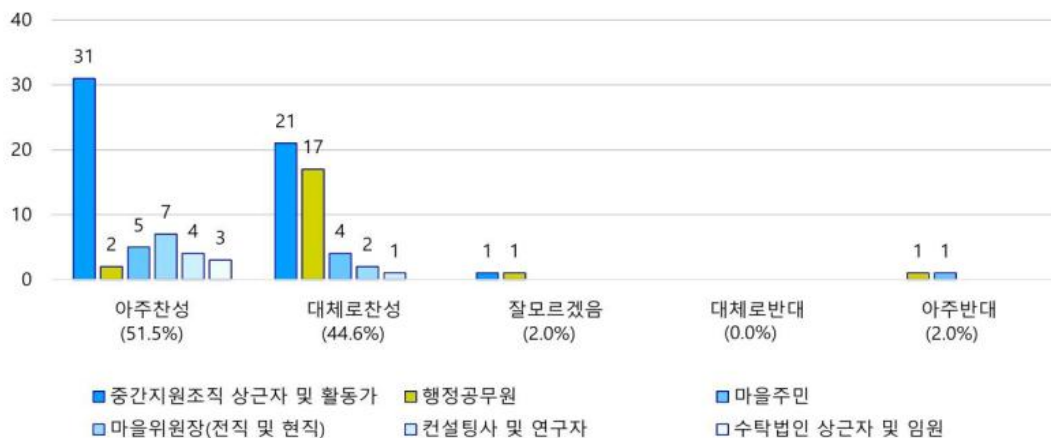
- 스스로 필요성에 공감하고 운영해야 가능, 조례에 명시한다고 잘 되지는 않을 것

2021/09/24

행정 지원체계 정비를 둘러싼 이해관계자 설문조사 결과

8

쟁점3. 정책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필수보직기간 준수, 전문직위제 도입, 민간 전문가 채용 등이 반드시 검토되어야 한다



2021/09/24

행정 지원체계 정비를 둘러싼 이해관계자 설문조사 결과

9

행정 지원체계 정비를 위한 당면과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행정이 조직개편으로 '과'를 설치한다면 '어떤 정책 분야' 중심으로 개편하는 것이 좋을까?



※ 기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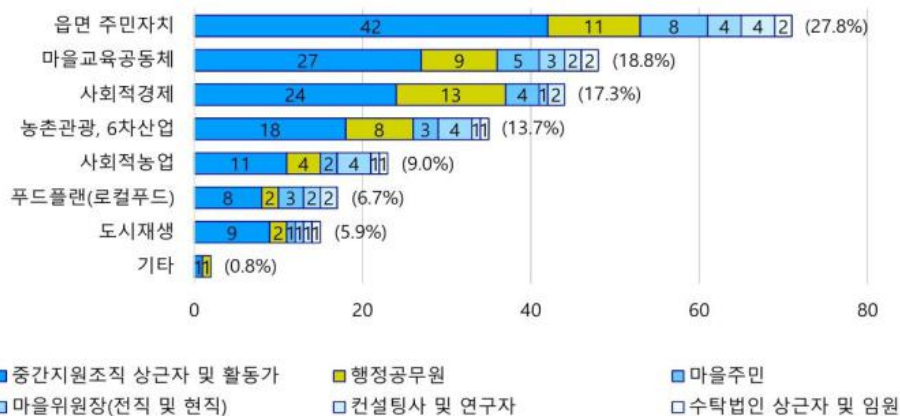
- 지역 특성과 시기에 맞게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TF같은 부서 필요
- 현재 사업은 일부 행정직렬에 치중된 면이 있으며 이로 인하여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전문성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임

2021/09/24

행정 지원체계 정비를 둘러싼 이해관계자 설문조사 결과

11

농촌 마을만들기 행정은 '어떤 정책 영역' 과 가장 가깝고 강하게 협력해야 할까?



※ 기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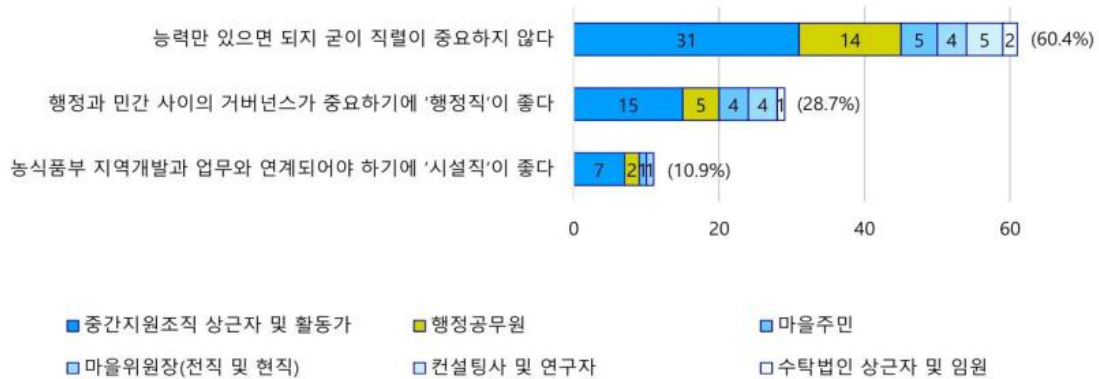
- 돌봄, 복지

2021/09/24

행정 지원체계 정비를 둘러싼 이해관계자 설문조사 결과

12

행정에서 마을만들기 중간지원조직(지원센터)을 담당하는 팀장은 '어떤 직렬'의 공무원이 좋을까?



2021/09/24

행정 지원체계 정비를 둘러싼 이해관계자 설문조사 결과

13

공무원 순환보직제의 단점을 보완하는 제도적 장치인 직위 공모제, 전문직위제, 임기제 공무원 채용 중에서 어느 것이 가장 중요할까?



※ 기타

- 담당 공무원은 업무 관련교육을 필수로 받도록 해야 한다
- 직위공모제를 시행하되 더 많은 가점이 필요하다
- 임기제공무원(5년)->전문직위제(5년 이상, 인센티브)->직위공모제(인센티브)로 단계적으로 실행
- 전문직위제와 임기제공무원의 결합

2021/09/24

행정 지원체계 정비를 둘러싼 이해관계자 설문조사 결과

14

행정 마을만들기 담당부서에 민간 전문가를 채용하는 '임기제 공무원' 제도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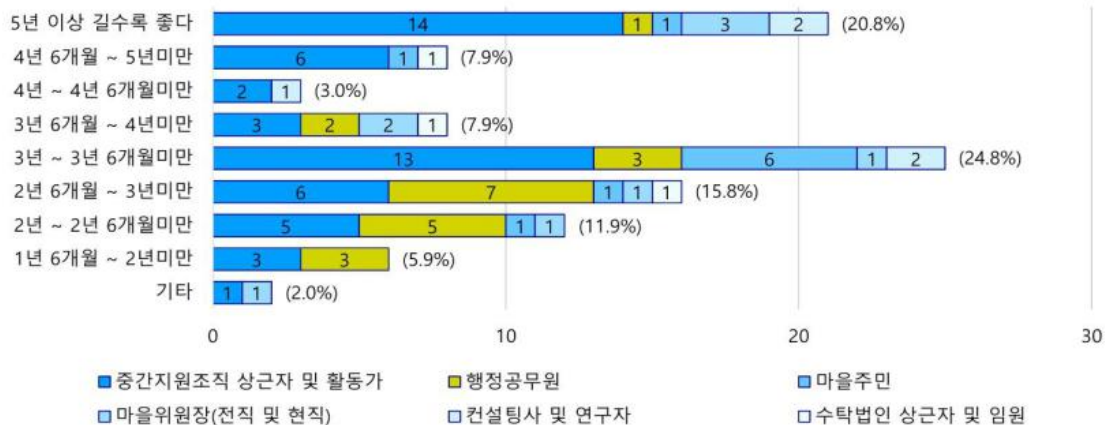
※ 기타
 - 담당부서의 여건이 다르므로 가능한 곳은 실행
 - 책임감이 저하될 수 있으므로 정규직이 타당
 - 민간에 전문가도 많이 없고, 전문가도 행정시스템에 길들여진다
 - 행정의 전문직위제와 임기제 공무원 모두 필요하다

2021/09/24

행정 지원체계 정비를 둘러싼 이해관계자 설문조사 결과

15

행정의 마을만들기 업무담당자는 최소한 '어느 기간 정도' 근무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할까?



※ 기타
 - 기간의 문제보다는 마인드와 역량의 문제이므로 주민 및 관계자로 구성된 공정한 평가로 기간연장 하는 방식

2021/09/24

행정 지원체계 정비를 둘러싼 이해관계자 설문조사 결과

16

기타 자유의견



열심히 일하는 행정 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

- 승진!! 인사고과우대
- 성과급, 포상금, 휴가
- 주민공동체 활성화 표창, 군수·대통령 표창
- 자신이 원하는 분야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 제공
- 전문관 예우, 전문관으로 오랜 기간 일하더라도 즐겁게 할 수 있는 여건 마련
- 인센티브 필요 없다. 행정공무원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한다는 것은 공무원조직에서 조직간 경쟁 심리를 부추기는 행위일 뿐 어차피 정해진 업무를 처리하는 것인데 굳이 인센티브가 주어질 필요는 없다. 양 진영에서 치여 가며 일하는 사람들 최소한의 자존감은 지켜줘라. 멀리 내다보면서 지역 사람들을 품고, 일을 유기적으로 엮어가는 포용적인 방법과 제도가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마을만들기는 언젠가 공허한 메아리와 허상으로 남을 것이다.



기대와 당부의 목소리 ①

- 주민을 행정과 동등한 입장에서 함께 하는 파트너로 인식하며, 수평적 관계로 의사소통하려는 시도가 있으면 좋겠다. 행정과 마을 간의 소통, 중간지원조직과의 적극적인 쌍방향 소통이 필요하다.
- 마을사업에 대한 어느 정도의 의견교환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고민한다면(행정 처리 위주의 모습이 아닌) 더 풍성한 마을만들기가 진행될 것이다.
- 기다려줄 수 있는 행정
- 상호 협력적 관계를 구축하고 중간지원조직의 자율성을 보장하도록 행정공무원들의 인식 변화, 주민을 민원인이 아닌 주민자치의 주체로 보는 관점 지향
- 주민들은 행정을 이해하고 행정은 주민들을 배려하는 마음에서 출발해야 하고, 서로에게 합리적인 거버넌스가 작동되어야 한다.

2021/09/24

행정 지원체계 정비를 둘러싼 이해관계자 설문조사 결과

19



기대와 당부의 목소리 ②

- 마을만들기를 진행함에 있어 적기적시에 지원이 가능한 추진력, 적극적인 업무와 협력
- 마을만들기 업무 담당자 간 네트워크 구축이 이뤄졌으면 한다.
- 공무원이 아이디어를 내고 결과를 근무성과에 반영하고 마을만들기 사업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제도 마련
- 행정은 수동적 태도로 중간지원조직에 어느 선을 요구하지 말고 본인들도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하면 좋겠다.
- 조금 더 밀착형으로 현장을 들여다보면 좋겠다.
- 최소한의 정보 제공 정도는 해줄 수 있는 능력 요망. 아는 사람끼리만 하지 말고 일반인들에게도 정보를 줘서 혜택을 모두가 누렸으면 좋겠다.
- 중간지원조직 업무 및 예산에 대한 어느 정도의 자율성을 주는 것이 필요하다.

2021/09/24

행정 지원체계 정비를 둘러싼 이해관계자 설문조사 결과

20



기대와 당부의 목소리 ③

- 전문성 강화, 공무원 연수원에 마을만들기 학과 신설.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교육을 받으며 전문가로서 활동할 수 있는 여건(제도)을 만들면 좋겠다.
- 순환보직제 뿐만 아니라, 공무원들의 태도와 지역성에서도 변화와 발전의 한계를 느끼게 된다. 유연한 사고력으로 경쟁할 수 있는 분위기가 형성되기를 기대한다.
- 지역발전의 큰 그림을 먼저 계획하고 읍면, 권역, 마을 단위의 사업을 함께 그렸으면 좋겠다. 이를 위해서는 각 협의체의 출현 및 의사결정권 부여가 필요하다. 이후 지역에 퍼져 있는 단체, 조직, 공동체의 의견을 종합하고, 행정에서 전문가와 함께 큰 그림을 그리고, 공유해주면 좋겠다. 그러면 중복되는 마을 사업을 줄일 수 있고 특색을 더욱 고민하고 찾게 될 것이다. 나아가 지역 전체가 나중에는 연결될 수 있도록 서로 연관되는 사업도 구상했으면 좋겠다.

2021/09/24

행정 지원체계 정비를 둘러싼 이해관계자 설문조사 결과

21



제4회 충남마을만들기 대화마당(금산)

【3부】 종합토론

“행정공무원도 마을활동가인가”

- 좌장: 구자인 소장(마을연구소 일소공도 협동조합)
- 쟁점토론자: 사례발표자 3인, 김태영 주무관(보령시 도시재생과 마을공동체팀)
- 주요 쟁점(예시)
 - * 행정 정책 칸막이 해결 방안
 - * 농촌협약 연계 행정조직 개편방안
 - * 마을주민을 위한 행정조직의 역할
 - * 마을활동가로서 공무원의 역할

행정공무원도 마을활동가인가

김태영 주무관(보령시 도시재생과 마을공동체팀)

1. 행정 정책 칸막이 해결 방안

우리 시의 경우 행정 칸막이를 없애기 위해 2015년 마을공동체활성화지원조례를 제정하면서 행정지원협의회 설치·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였고, 2018년에는 행정-민간-중간지원조직간 소통체계를 강화하고자 ‘보령삼통회’를 구성하였으나 활발하게 운영되지는 못했다. 최근 농촌협약,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 등을 준비하면서 행정협의회를 재정비하고 활성화를 위한 노력으로 형식은 갖춰졌으나, 다양한 이해관계 속에서 만족할 만한 결과를 도출해 가기엔 아직 갈 길이 멀다.

그동안 수차례 행정협의회를 진행하며 겪은 시행착오와 고민을 바탕으로 우리 시가 구상 중인 사항도 하나의 방안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공유하자면, **첫째**, 적절한 인센티브는 당연히 주어져야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처음부터 강력한 인센티브가 주어지는 것은 무리가 있고 단계적으로 인센티브를 확보해 가야한다. 우리가 찾은 가장 기초적이고 쉬운 첫 번째 단계는 상시학습인정이다. 우리는 수년전부터 시군역량강화사업을 통해 마을만들기 관계공무원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매년 운영 중에 있고 프로그램 참가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결과 만족도도 꽤 높은 편이다. 이미 인사부서와 협의를 통해 참가하는 공무원에게 상시학습시간을 인정해주는 것 또한 만족하는 부분 중 하나이다. 우리는 지금까지 실무자 대상으로 진행되었던 이 교육을 내년부터는 행정협의회 구성원을 대상으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주요사업에 대한 추진상황과 추후 계획에 대한 공유와 협조방안 등의 내용을 프로그램에 담아 진행해보고자 한다. 또한 시 자체적으로 운영 중인 ‘창의학습동아리’ 또한 상시학습시간을 인정한다. 활동비와 연말평가를 통한 상금도 하나의 인센티브가 될 것이다. 이를 활용해 행정협의회에서 어떠한 성과를 만들어낸다면 인사고과 반영이나, 해외연수 등 누구나 혹은 할만한 인센티브를 단계적으로 확보해 갈수 있을 것이다. **둘째**, 회의의 틀을 바꿔야 한다는 것이다. 그동안 우리는 조례를 근거로 단체장의 방침을 받아 공문으로 참석을 강요해왔다. 감사하게도 대부분 흔쾌히 응해주셨지만 담당자로서 죄송스럽기 짝이 없다. 회의는 농촌협약, 신활력플러스사업 등 행정협약이 필요한 사업에 대한 목적과 추진방향, 세부계획에 대해 나름 열심히 자료를 만들어 사전에 배포하고, 전문가를 통해 설명하고 의견을 받는 여느 회의와 다를 바 없지만 몇 차례만의 회의로 만족할만한 의견은 제시되지 않았다. 이전에 직접 접해보았거나, 관심을 갖고 따로 알아보지 않는 이상 한 두시간의 설명으로는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추진체계나 내용을 쉽게 이해하기 어렵

기 때문에 어찌보면 당연한 일이다. 또한 정형화된 회의방식에서 다양한 의견을 자유롭게 제시하고 토론하기엔 너무나 딱딱하고 경직되어 있다. 당면한 현안업무로 골치가 아픈데 공식적인 회의석상에서 말 한마디 잘못해 본인의 일이 늘어날까 노심초사, 눈치싸움도 당연한 일이다. 내가 직접 준비했던 행정협의회의도 그렇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일방적으로 안건을 제시하고 우리가 원하는 답을 말해 주기만을 강요하고 있었던 것 아닌가 하는 반성을 하게 된다. 오히려 아침, 저녁으로 팀장님과 내가 직접 발품 팔아 관련 부서를 직접 찾아다니며 부서별로 만나 논의한 것이 훨씬 도움이 많이 되었다. 그래서 우리는 앞서 언급한 역량강화교육과 연계해 시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창의학습동아리를 활용하고자 한다. 역량강화교육을 통해 제시된 의제에 대해 2~3개 부서로 구성되는 분과별로 지원되는 활동비와 점심시간 등 자유로운 시간대를 활용해 브라운백 미팅 등 조금은 더 편안하고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서로의 의견과 애로사항을 허심탄회하게 공유하고 공감하며 토론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고자한다. 물론 우려와 걱정도 있지만 지금보다는 낫지 않을까? 하는 기대로 감히 해결방안을 제시한다.

2. 농촌협약 연계 행정조직 개편방안

우리 시는 농촌기반정비사업을 담당하던 건설과 농촌개발팀에서 해오던 농촌개발사업 업무를 2016년 7월 마을만들기팀으로 분리·신설하면서 기능을 강화시켰고, 2018년 10월 조직개편을 통해 도시재생과로 이관시키며 마을공동체팀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팀장 포함 5명으로 구성된 현재의 조직체제를 갖추게 되었다. 우리 시도 앞으로의 농촌개발사업의 방향에 따라 농촌협약 전담부서 신설을 준비 중에 있다. 타 시군의 사례를 참고로 농식품부 소관업무 중심의 조직으로 갈 것인가, 아니면 공동체 내지는 사회적 가치를 중심으로 하는 조직으로 갈 것인가 하는 방안에 대해 수많은 논의가 있었고, 도시와 농촌, 어촌지역이 공존하는 지역의 특성, 그리고 내부적인 인력운영 측면을 고려해 후자의 방식에 공감대를 이뤄 단체장의 방침까지 받은 상태로 신속히 조직을 개편하기 위해 노력 중에 있다.

그러나, 6차산업, 귀농귀촌을 담당하는 관련부서와의 협업체계는 결국 행정협의회를 통해 해결해야하는 한계점이 있고 이는 농식품부 소관사업을 중심으로 전담부서를 개편한 지자체도 마찬가지이다. 이와 관련해 이미 구성된 행정협의체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는 것이 현실적이지 협업을 위한 과단위의 전담부서까지 필요한가라는 의견도 있는 것도 사실이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우리 시는 도시계획, 도시재생사업 등을 담당하는 도시재생과에 속해 있다. 타 시군과 다른 조직체계에 독특하다고 의견도 있지만, 부정적인 시각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도농복합지역이라는 지역적 특성과 주민주도 내지는 주민상향식이라는 유사한 사업 추진방식 등을 고려해 도시재생사업과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협업을 통해 시너지를 얻어 나름 무리 없이 잘 운영되고 있다고 자부한다. 지자체의 현실과 국비 보조비율이나 사업의 규모로 볼 때 어느 지자체도

농촌개발사업의 중요성을 간과할 수 없다. 조심스럽지만, 팀 단위의 전담조직을 중심으로 지방이양사업을 충실하게 이행해나갈 지자체의 의지와 여건이 확보된다고 판단된다면 조직체계 만큼은 지자체의 자율성도 인정해주었으면 하는 바람은 있다.

3. 마을주민을 위한 행정조직의 역할

마을주민들이 요구하는 사업 매년 신청 받는 주민참여예산의 경우만 보더라도 매우 다양하고 규모 또한 상당하다. 행정에서는 재정적, 형평성의 문제 등으로 그 요구를 모두 들어주지는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하지만 행정조직은 마을주민을 위한 중간다리 역할은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 시가 '17년부터 '20년까지 4년간 추진했던 시군창의 사업을 통해 발굴·육성한 문화예술공동체의 사례를 들어보면, 사업기간동안에는 사업비를 통해 적극적인 지원이 가능했지만, 사업 종료를 앞두고 우리와 중간지원조직의 고민이 커졌다. 사업이 끝나도 자립할 수 있도록 다양한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진행해왔지만 막상 끝나면 정말 자립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었다. 공동체도 마찬가지로 고민을 하고 있었다. 당장 '사업이 끝나도 우리 계속 하던 축제라도 할 수 있게 지원 좀 해줄 수 없을까?', '어떻게든 해보려는데 아직은 우리 힘만으로는 부족한 것 같아.. 좀 도와줘' 라고 한다. 그렇다고 주머니의 쌈짓돈을 꺼내드릴 수도 없는 노릇이기에 관련 부서부터 찾아다니던 중 인구정책부서에서 추진하려는 출산장려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리를 놓아 연결시켜 드렸던 적이 있다. 사업 종료 시점에 아주 좋은 기회였고 결과도 성공적이었다. 이 후에는 산림지역인 마을자원을 활용해 산림청 사업, 문화체육관광부사업 등 다양한 사업에 다리를 놓아드리자 활동도 더욱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만일, 시군창의 사업은 끝났으니 더 이상 도와드릴 수 없다고 했다면 이 공동체는 어떻게 되었을까 생각해 보게 된다. 조금만 관심을 두고 찾아보니 너무나도 많은 기회가 있던 것이다. 마을주민들은 시의 어느 부서에서 어떤 사업을 있고 어떤 지원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는지 속속들이 알기 어렵다. 행정은 내부망을 통해 사업에 대한 정보교류가 주민들보다 훨씬 활발하다. 앞서 논의한 행정협의체를 통한다면 더욱 좋을 것으로 생각된다.

4. 마을활동가로서 공무원의 역할

그동안 많은 사업들이 추진되어 오면서 다양하게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해 공무원들은 그 문제 해결을 위해 직접 관여하게 되고 다양한 사례를 접하게 된다. 때문에 공무원은 그동안 접했던 경험과 시행착오를 바탕으로 현실적인 마을발전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역량이 있고 그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때로는 주민들의 원성을 감수하더라도 뜯어말리는 역할도 반드시 해야 한다. 마을과는 전혀 맞지 않는 시설물은 결국 애물단지로 전락해 관심 밖으로 내팽겨 쳐지고, 시설물 관리를 두고

주민들 간 책임전가에 따른 다툼은 일상다반사이며, 구체적이지 못한 사후관리방안으로 사업이 완료되도록 운영위원회 구성조차 애를 먹기도 한다. ‘시에서 운영비를 지원해달라’, ‘운영비를 못준다면 수익사업하게 해달라’ 등등 관련 민원이 봇물 터지듯 하다. 멋지게 꾸며놓은 기본계획상의 시설물 운영계획은 장밋빛으로 가득하지만 현실은 전혀 그렇지 못하다. 운영단계에서 다툼이 지속되어 마을은 사업에 대한 추진동력을 잃고 무너져가기 일쑤이다. 우리 시는 현장포럼이 진행되는 마을에 각 프로세스마다 담당공무원이 현장활동가로 직접 참석하면서 마을주민들과 같이 마을의 자원을 찾고 테마를 발굴해가면서 자연스럽게 그 마을에 관심과 애정을 쏟게 되고 자연스럽게 알아간다. 활동가로 직접 참여했던 현장포럼 마을주민들은 나에게 ‘김주무관은 우리 마을 잘 알잖아~’라는 말이 자연스럽다. 하지만 마을에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마을을 알아가는 것만이 공무원의 역할이라고는 할 수 없다.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의 몫이기 때문이다.

메 모 장

This image shows a single sheet of white paper with horizontal ruling lines. The lines are evenly spaced and run across the width of the page. There is no text or other markings on the paper.

메 모 장

[illegible]

메 모 장

This image shows a single sheet of white paper with horizontal ruling lines. The lines are evenly spaced and run across the width of the page. There is no text or other markings on the paper.

메 모 장

This image shows a single sheet of white paper with horizontal ruling lines. The lines are evenly spaced and run across the width of the page. There is no text or other markings on the paper.